



# 한인뉴스

Korean News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발행 :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홈페이지([www.innekorean.or.id](http://www.innekorean.or.id))에서  
한인뉴스 과월호를 다운로드 받아서 책자 모양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고래의 꿈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고 싶었던 고래는  
거친 파도를 헤치며 세상 모두의 꿈이 만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세계 아이들과 만나게 된 고래는 더 크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세계 속에 해운물류산업의 역사를 세워온 STX팬오션!  
반세기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상의 소중한 꿈들을 지구 반대편 어디라도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안목과 큰 생각을 가진 글로벌 기업으로,  
100년 역사의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갑니다

## 자카르타

Bapindo Plaza, Mandiri Tower 23rd Fl.  
Jl. Jend. Sudirman Kav.54-55  
Tel: 62-21-5267180

## 서울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631번지 STX 남산타워  
Tel: 82-2-316-5410

Beyond Ocean-

**stx** PanOcean

180° 평면의 안락함과 프라이버시를 제공해 드리는 퍼스트 클래스의  
Kosmo Sleeper Seat, 이코노미 클래스의 모든 좌석에서도 즐기실 수 있는  
주문형 오디오·비디오 시스템, 머큐리 어워드(Mercury Award) 최우수상을 수상한  
고품격 기내식과 웨지우드(Wedgewood)에서 제작한 우아한 식기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로 대한항공이 특별하게 모시겠습니다.



From departure to arrival, Excellence in Satisfaction

# Polyurethane Form의

세상을

이끌어

갑니다



*Your dream can come true  
with PT.SERIM Indonesia*



**PT. SERIM INDONESIA**

[www.serimindonesia.com](http://www.serimindonesia.com)

Tel. (021) 547-6453~9

Fax. (021) 546-2739/6601

**Medan Factory**

Tel. (061) 6874-3330~1

Fax. (061) 6874-3332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위하여  
KIDECO는 여러분과 함께 초록세상을 가꾸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에너지 자원회사

**PT. KIDECO JAYA AGUNG**

# 국민을 위한 Garuda Orient Holidays 패키지 모음

## GOH 와 유럽 가기

11일간의 환상적인 유럽  
최저가로 즐기는 절호의 기회

성인 \$1,969  
어린이 \$1,595

제01일	자카르타-암스테르담	제07일	파리
제02일	암스테르담-퀸-프랑크푸르트	제08일	파리-브뤼셀
제03일	프랑크푸르트-인스부르크	제09일	브뤼셀-암스테르담
제04일	인스부르크-루체른	제10일	암스테르담
제05일	티트리스 산	제11일	암스테르담-자카르타
제06일	루체른-파리		

### 여행 출발 일자

6월 23/25/27/30

7월 02/06/09/16/20/23/27/30

포함사항 : 자카르타-암스테르담 왕복티켓/암스테르담 공항세 및 항공보험/여행자 보험/  
여행, 숙박, 교통편 일정 중 식사(일부)/여행가이드(영어)/자카르타 공항 송객서비스/

## GOH 와 인도네시아 가기 1, "가루다 항공 자카르타 AIRTEL"

6월 30까지 유효

호텔	객실종류	요금(원)	
		2인1실	1인1실
★★★ IBIS Slipi IBIS Mangga Dua	Standard Superior	499,000	549,000
★★★★ Mercure Convention Centre Aston Marina Crowne Plaza Gran Melia	Superior 1BedRoom	529,000	599,000
	Deluxe Deluxe	559,000	739,000
★★★★★ Mulia Senayan Four Seasons	Superior Splendor	599,000	779,000
★★★★★ Mandarin Oriental Jakarta	Superior	669,000	889,000
포함사항	인천-자카르타 왕복 항공권, 자카르타 GOH 호텔 2박 숙박		

## GOH 와 인도네시아 가기 2, "인도네시아 국민 가족초청 발리 AIRTEL"

6월 30까지 유효

지역	호텔	요금(원)	
		평일 출발	일*월요일 출발
짐바란	★★★★ Best Western New Kuta Condotel	619,000	819,000
	★★★★★ Intercontinental Bali Resort	779,000	989,000
사누르	★★★★ Sanur Beach Hotel	659,000	869,000
꾸따	★★★★ Bali Kuta Resort & Convention Center	649,000	849,000
	★★★★★ Holiday Inn Resort Baruna Bali	739,000	949,000
누사두아	★★★★ Aston Bali Resort & Spa	669,000	879,000
	★★★★★ Melia Bali Villas & Spa Resort	709,000	919,000
	★★★★★ Nikko Bali Resort & Spa	769,000	979,000
	★★★★★ The Westin Resort	759,000	969,000
우붓	★★★★ Beji Ubud	699,000	909,000
	★★★★★ Alila Ubud	819,000	1,020,000
따나룻	★★★★★ Le Meridien Nirwana	719,000	929,000
스미낙	★★★★★ Sofitel Seminyak	739,000	949,000
포함사항	인천-자카르타-발리-인천 간 항공권, 발리 GOH 호텔 2박3일 숙박 및 발리공항-호텔간 차량		

GOH 와 여행하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국제선\*국내선 항공권 발권, 인도네시아 국내여행 및 호텔예약도 도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가장 편안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의 및 예약

다르마왕사 스퀘어 3층 55호

전화 : (021) 7278-0856/0859

이메일 : oh\_kumju@primef.co.id / michelle.lee@primef.co.id

# 8.15 광복절 기념, 한인회 행사 안내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잃었던 주권을 되찾고 동시에 우리 민족의 힘으로 민주국가를 처음으로 세운 날입니다. 매년 한인회는 광복절을 기념하여 모든 교민들이 참여하고 조국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친목과 단결의 경축한마당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광복 65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도 한인회에서는 뜻 깊은 경축행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교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 8.15 경축행사 및 체육대회

1. 일시 : 2010.8.15 (일) 오전 9시 30분~ 오후 4시 30분
2. 장소 : 자카르타 한국 국제학교 대 운동장 및 강당
3. 광복절 기념식 및 체육대회, 경축공연

A. 일반 체육대회 : 09:30 ~ 12:00 [운동장]

- ▷ 체육종목 : 제기차기, 투호놀이, 윷놀이, 비석치기, 어린이 달리기, 성인 달리기, 엄마와 달리기, 축구
- ▷ 진행 : 팀으로 운영하오니 입장 시 등록 필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팀은 당일 날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 B. 점심식사 : 12:00~13:00 [운동장]
- C. 광복절 기념식 : 13:30~14:00 [강 당]
- D. 경축공연 : 14:00~16:30 [강 당]

4. Lucky Draw 추첨 [강 당]  
\*상품이 푸짐합니다. 모두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 • 골프대회

1. 일시 및 장소
  - A. 일시 : 2010년 8월 15일 (일) 오전 7시 Tee-Off
  - B. 장소 : Halim Lama CC
2. 회비 : Rp. 450,000  
(조식, 중식, Caddy Fee, Green Fee포함, 참가기념품, Tip은 개인 부담)
3. 티켓 판매
  - A. 티켓 : 남 - 120매, 여 - 30매
  - B. 판매 기간 : 2010년 7월 16일~8월 6일 (선착순)
  - C. 판매처 : 한인회 (021-521-2515)
4. 티켓 구입 시 주의사항 :  
성명, 핸디캡, 연락처를 반드시 기입 구입한 티켓은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5. 참가 자격
  - A. 남 : 핸디캡 28이하, 여 : 핸디캡 30이하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

## 제5차 동남아 한상대회 개최 안내

동남아 한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동남아 한상대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10년 8월 20일(금) ~ 8월 21일(토)

**장소** : 말레이시아 건평 하일랜드

**주최** : 동남아 한상연합회

**후원** : 재외동포재단

**참석대상** :

인도네시아를 비롯 동남아에서 사업을 하시는 모든 사업주.

**접수 및 문의처** :

동남아한상연합회 사무국(인니코참사무국)

전화 : (62-21) 527-7539

팩스 : (62-21) 5296-0586

이메일 : [kocham@cbn.net.id](mailto:kocham@cbn.net.id)

## 한인뉴스 사원모집 안내

재인도네시아한인회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한인뉴스' 와 함께 일 하실 분을 찾습니다.

**업무내용** : 취재 및 편집

**모집인원** : 1명

**모집기간** : 2010년 7월 10일 ~ 채용시

**급여사항** : 추후 협의

**접수방법**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하기 이메일로 송부

**접수 및 문의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 521-2515

이메일 : [haninnews123@gmail.com](mailto:haninnews123@gmail.com)

인도네시아 한인회보

# 한인뉴스

창간 1996년 7월 15일

발행처: 인도네시아 한인회

발행인: 승은호

편집인: 조규철

논설위원: 김문환

편집위원: 김재민, 김은미, 최양기, 정무송, 김영민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123@gmail.com](mailto:haninnews123@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웹사이트에서 과월호 한인뉴스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2



52



## 10 차 한잔 마시며 아묵 Amuk

### 12 한인사회 소식

- 월드컵 첫 원정 16강, 응원전은 세계 최강
- 교민성유업체, '플패키지 공급업체' 준비해야
- 21대 봉제협회 회장에 배도운씨 연임
- 세계한인회장대회 최대 규모로 개막
- 2010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대회 마닐라에서 개최
- 한인회, 신입이사 12인 선임
- 한인회, 천안함 성금모금 전달
- 빵랑오 국립공원내 한국전통가옥 짓는다
- 열대림 우량묘목생산 위한 양묘센터 준공
- 코참-KITA 협력방안 논의
- 코참, 인니상공회의소 방문
- 코참, 세무서 간담회 참석
- 최고의 물류항, '인천항' 을 이용하세요
- 박금철씨 유공근로자 대통령상표창 수상
- 장미회, 친목골프대회 열어
- 대사관, 중부자바 지역 '경제설명회' 개최
- 한바다호, 자카르타 입항
- 한인사회, 실종학생 긴급수색대책회의 열어
- 한국무역협회, 현지진출 물류간담회 개최
- 굳게 닫힌 무지개 공부방, 다문화자녀 마음도 달힐라
- 땅그랑한인회, 현지인 부부 합동결혼식 추진
- 우리은행, 130명 고객초청 사은행사 개최
- 월드옥타인도네시아, 제3기 차세대무역스쿨 실시
- 월드옥타인니지회, 정기총회 및 골프대회 개최

### 32 릴레이 인터뷰 이지현 수디르만 로터리 클럽 2대 회장

### 34 별과 달이 비추는 오지의 마을 발리 섬의 두 전통마을

### 37 김은미 편집위원의 추천도서 그 개는 무엇을 보았나?

### 38 유춘강의 공정칼럼 반동의 바람이 전해주는 추억

### 40 한인사회 소식

- 원더걸스에 인니팬들 '원더풀~'
- 미원인도네시아, 다문화가정 지원 시동걸었다
- 동서증권, 키움증권과 합작통해 우수증권사로 거듭날것
- 하나은행-OCBC NISP 전략적 업무협약 맺어
- 인도네시아 댄스페스티벌 10회째 개최
- JKS 소식

### 61 행복한아이의비밀9 가족의 형태-아빠, 누가 아빠지?

### 52 평통광장

### 32 건강칼럼 젊음을 되찾아 주는 싱그러운 마술사 토마토

### 56 드라마에서 퍼올린 바하사~

### 58 김신의 알고싶은 컴퓨터 이야기 5 컴퓨터 본체

### 61 인니 한인사회의 문화 실재 4 한인들의 자선문화

### 64 6.25 60주년 특별기고 내가 겪은 6.25

### 67 재인니문화연구회, 문화탐방 인터넷 공모전

### 68 BOOKS

### 70 MOVIES

### 71 생활정보 가이드

### 76 7월 공지사항

## 아묵 Amuk

김문환 / 논설위원

Amuck(어떡)이라는 단어를 영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말레이인의 살상욕을 수반하는 정신착란'이란 뜻의 명사이며 이를 동사화 하면 'run(go) amuck'이 되어 '죽이려고 날뛰다' 또는 '미친 듯이 설치며 행패부리다'로 해석된다. 즉 이 단어는 말레이, 인도네시아어인 아묵 Amuk(아묵), 또는 Amok(아묵)에서 유래된 어휘임을 알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어 동사형으로는 'Mengamuk'을 쓴다. 지난 4월 23일 자 콤포스지는 'Buruh Galangan Kapal Mengamuk(조선소 근로자들이 미친 듯이 설치며 행패를 부렸다)'라는 제목으로 헤드라인을 뽑았다. 바탐(Batam)에 있는 드라이독(PT.Drydock)이라는 두바이계 조선소에서 외국인(인도인) 관리자가 현지인을 비하하는 인종차별적 언사를 쓴 것이 도화선이 되어 9천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폭동을 일으켜 26대의 자동차를 포함한 회사 기물을 파괴하며 난동을 부리자 인도인을 포함한 200여명의 외국인 근무자들은 가까운 섬과 싱가포르로 도피하여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내용이다. 이보다 9일 전인 4월 14일에는 판중 뿌리옥의 향만공사(PT. Pelindo)와 지역주민들간에 해묵은 토지분쟁이 도화선이 되어 이를 강제집행하려는 시 당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지역 주민간에 무력 충돌이 발생하여 시청 소속 시립경찰 3명이 사망하는 불상사가 야기되었다. 이 사건은 1984년 9월 발생한 '판중 뿌리옥 대폭동'이래의 가장 큰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최근 이러한 충돌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대해 사회학자들은 이를 일종의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진단하기에 이른다. 쉐뚜리는행 이슈를 덮어버리며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한 가유스(Gayus)라는 세무 공무원의 뇌물 스캔들은 대표적인 국가 사정기관들인 경찰, 법원, 검찰을 모두 올라미에 얽어 놓으며 또 한번 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 때 묻지 않고 건전한 사고방식으로 사회에 입문하여야 하는 젊은이들에게 부정과 부패를 저질러 형무소에 가는 한이 있어도 부를 축재하여 호화로운 생활을 몽상하는, 소위 '가유스 현상(Gayus Phenomena)'이 오염되고 있는 실정이다. 요즘 젊은이들 꿈자리엔 스스로가 가유스로 변신하여 원하는대로 돈을 쓰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잠고대에서 깨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처음 이 스캔들이 터졌을 때에 가유스가 뇌물로 받아 모아둔 돈은 280억 루피아로 드러나 언론매체에 대서특필되었으나 최근 바끄리 그룹을 포함한 대기업으로부터 수수한 검은 돈 740억 루피아가 여러 은행의 대여금고에서 추가로 발견되자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잊고 허탈감에 빠져 있다. 판중 뿌리옥의 지역 주민들이나 바탐 조선소의



근로자들은 쥐꼬리만 한달 수입으로 최저생활을 하기에 급급한데 나이 30세 밖에 안된 가유스란 말단 사무공무원은 자신들이 평생 동안 만져볼 수도, 구경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몰쓰듯 쓰며 초호화판 생활을 누리는데 대한 자아 상실감에 때문에 '아묵'의 정도가 더욱 결렬할 수도 있었다는 견해를 내놓는 학자도 있다.

인도네시아 현대사에서 '아묵'이 발동하여 폭동화되거나 또는 국가재난의 상태로까지 비약하여 물질적 피해는 물론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킨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사건들은 거의 주기를 타고 발생하였음도 볼 수 있다. 멀리는 1973년 8월 반동에서 일어난 반화교 폭동, 1984년 9월의 판중 뿌리옥 대폭동, 1994년의 메단 폭동, 1996년 12월 서부자와 따식말라야에서 일어난 반화교 폭동, 그리고 32년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5월 폭동에 이르기 까지 거의 10년 주기로 반복되어 왔다. 특히 수하르토 정권을 무너뜨린 1998년의 '5월 사태'는 외관상으로는 화교들을 타깃으로 삼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독재정권에 저항한 '피플 파워(People Power)'의 힘이었으며 그 피플 파워의 내면엔 말레이, 인도네시아인들의 특성인 '아묵'이라는 장약이 장전되어 있었다는 논리를 편다고 이를 간단히 코웃음으로 내칠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우리는 판중 뿌리옥 폭동, 바뎀 폭동 등 일련의 사태가 기사화된 일간지를 읽어가면서 그 다음 페이지로 쉽게 넘어 갈 수 없는 어떤 자력의 힘에 끌리게 된다. 단순히

남의 일로 치부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화와 종교가 상이한 이곳에 진출한 초창기의 한국기업치고 크고 작은 노사분규를 겪지 않은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20여 년 전 하루가 멀다 하고 일간지의 사회면을 장식하는 진출기업들의 노사분규가 국위를 추락시키고 한국인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게 되자 직장내에서도 현지인들에게 얼굴을 들기가 창피할 지경이었고 선진국 교민들은 우리를 '3류 국민'이라고 수근거리곤 했었다. 평소 다소곳하고 온순한 듯 보이는 그들이 바로 '아묵'이라는 장약에 불이 붙기만 하면 사전의 해석처럼 '미친 듯이 설치며 행패 부리는' 본성을 이렇게 치욕적이고 아픈 경험을 겪은 후에야 비로서 간파하게 된 것이다. 판중 뿌리옥 폭동 당시 수적으로 밀려 후퇴하던 시립 경찰대원들 중 군중들에게 잡힌 세 명이 길바닥에 쓰러져 거의 숨이 넘어간 듯 한데도 주민들이 몽둥이와 흉기를 들고 '죽이려고 날뛰며' 계속 후려치는 장면이야말로 인간의 잔혹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스냅사진이었지만 사전에 나오는 '아묵'이라는 단어의 뜻을 너무나 정확히 해석해준 현장이었다.

지금 우리 한인사회의 규모는 나날이 팽창하고 있다. 이는 신규 사업체의 유입을 의미하기도 한다. 요즘은 옛날과 달라 이곳에 진출하기 전 언어라던가 기본 지식을 미리 갖춰 들어오는 추세이기도 하지만, 아무리 해도 일단 이곳에 들어오면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다. 진출기업의 경영자나 관리자들은 최근 발생한 판중 뿌리옥 폭동이나 바뎀 폭동이 우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 하여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으며 인도네시아어 사전에는 '아묵'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예방적 차원에서 어떤 문제에 대처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 월드컵 원정 첫 16강 응원전은 세계 최강

6월을 뜨겁게 달궜던 월드컵  
교민사회 곳곳서 뜨거운 응원전 펼쳐져

2010년 남아공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월드컵 출전사  
상 첫 원정 16강의 쾌거를 달성해 전 국민의 전폭적인 응원  
에 화답했다.

교민들도 각 단체별, 모임 별 뜨거운 응원전을 펼치며 우  
리 국가대표팀의 선전에 환호와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를 비롯한 지역한인회 등에서는 수백  
여명이 모일수 있는 응원전을 기획했고 각 식당들도 손님들  
의 월드컵 시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완벽한 준비를 하는 등 월  
드컵 기간 내내 분주했다.

가정에서 관람한 이들은 관람을 위해 공중파 수신용 안테  
나를 구입하는 등 그 열기는 어는 응원전 못지 않았다.

특히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이하 JKIS)에서 인도네시아

한인회가 주최한 대형 응원전에는 적게는  
200여명 많게는 500여명의 교민들이 운집  
해 교민들의 열정을 보여줬고 한바패의 사물  
장단에 맞춰 대~한 민국을 외쳤다. 땅그랑 한  
인회에서 주최해 땅그랑 교민교회에 모인 지  
역 교민들도 가족, 친지, 직장 동료 등이 함께 모  
여 즐거운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에 즐거운 비  
명을 질렀다.

아르헨티나에 많은 골 차이로 패했지만 유로  
2004 우승국이었던 그리스를 가볍게 제압하고  
예선전 마지막 나이지리아의 무승부를 통해 1승  
1무 1패 조 2위의 성적으로 16강 진출이 확정되  
자 교민들은 부등 켜 안으며 기쁨을 함께 나눴으  
며 더 이상 변방 아시아에서만 맵주가 아닌 세  
계 선진국들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으  
로 가득했다.

하지만 16강 전 첫 경기로 치러진 우루과이와  
의 경기에서 전체적인 경기 우위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계속되는 오심과 골 운이 따르지 않아 석  
패하자 교민들의 아쉬움은 더욱 컸다.



JJKS에 모여 단체응원전을 펼친 한 교민은 “지금 우리 팀의 실력이라면 8강 이상도 갈 수 있었는데 정말 아쉽다. 태극전사가 자랑스럽고 한국인이라는 게 너무도 자랑스럽다”며 감동의 말을 전했다.

월드컵 경기는 전세계 수십억의 축구팬들이 지켜본다. 이번 남아공 월드컵에서 보여준 우리 팀의 실력은 이젠 축구 선진국에서조차도 경계해야 할 실력축구임을 증명한 대 사건이었고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 세계인에게 각인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에 틀림없다. 남아공 월드컵을 계기로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우리 축구팀과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를 기대해 본다.





## 교민섬유업체, ‘플패키지 공급업체’ 준비해야

- 중국,베트남,미국 의류산업 동향 인니진출 섬유업체 지원 세미나 개최

중국, 베트남 및 미국 섬유기업 및 시장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을 통해 인니에 진출한 교민 섬유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미나가 코트라 자카르타무역관과 재인니한국봉제협회 주최로 지난 6월 24일 자카르타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김호영 대사는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는 인도네시아를 우리기업들이 80년대 말부터 생산기지로 택한 것은 매우 탁월한 선택이었다”며 100여명이 넘는 교민 섬유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조했다. 김호영 대사는 40만 노동자 고용과 30억불을 수출하고 있는 우리 봉제기업들의 성과에 인니 정부에서 매우 감사해 하고 있다고 전하고 인니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노력에 맞게 우리 기업도 행정운영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배도운 봉제협 회장은 “지난해 세계최대 의류시장인 중국과 베트남의 변화로 인해 인니 의류산업은 세계적 불황에도 불구하고 호황을 누렸다”고 말하며 이번 세미나가 우리봉제업체의 발전에 더욱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섬유기업들의 현황 및

미국의류시장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양장석 칭다오 무역관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 임금 인상, 바이어구매가격 동결에도 불구하고 높은 생산성, 양호한 원부자재 조달여건, 큰 내수시장으로 인해 기업 경영이 지속되고 있다”고 최근 중국의 경영환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양 관장은 2008년 기업중심에서 노동자중심으로 정책이 선회하게 된 신노동계약법 발효 이후 비용급증, 임금상승, 인력난 등이 기업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임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대형기업(3천명 이상)은 복리후생강화통한 생산성제고 및 내수시장진출모색하고 있고, 중형기업(1천~2천명)은 중국내륙으로 이전을, 소형기업(1천명 이하)은 주로 일본 오더로 운영하는 등 어려워지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동향을 설명했다.

신남식 호치민 무역관장은 “금년도 100억불 수출이 예상되는 섬유산업은 베트남 대표산업으로서 2000년도 본격적인 외국기업의 투자이래 한국이 굳건히 1위를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관장은 중국섬유업체의 경쟁력 약화, 대일수출여건개선 및 베트남 정치/사회 안정이 섬유기업 경영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지



## 21대 봉제협회 회장에 배도운씨 연임

- 안창섭, 최갑태 씨 신임부회장으로 선출

제인니한국봉제협회의회(회장 배도운)는 지난 5월 24일 약 100여명의 봉제협회 회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배도운 씨를 제21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배도운 회장은 지난 2008년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3년째 연임하게 되었다.

만장일치로 선출된 배도운 회장은 “봉제협회의 역사가 벌써 20년을 넘겼다. 회장으로서 봉제협회 발전에 도움일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취임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21대 회장단들에 대한 소개와 함께 새롭게 선출된 안창섭(보고르 지역), 최갑태(땅그랑 지역) 부회장들의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또한 봉제협회는 그간 보고르와 땅그랑 지역 부회장으로 소임을 다한 이세호,

김기필 前부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병수 사무총장은 2009~2010년도 봉제협회 주요 행사 및 결산 보고를 통해 봉제협회의 활동상을 전달하고 올해 9월 말 봉제협 골프대회개최 및 봉제협 홈페이지 구축 등 올해의 주 행사 및 사업들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봉제협회는 2007년 이후 올해 새롭게 업데이트한 회원사 주소록을 회원사에 배포했다. 이번 업데이트 된 봉제협 회원사는 2007년도에 비해 약 90개 업체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병수 사무총장은 금번 주소록 출간에 회원사들의 참여의식이 아쉬웠다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주소록에 회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당부했다.

만 매년 약 30% 인건비 인상, 심각한 인력난 및 전력난, 까다로운 환경기준 및 정부의 불법파업 미대응 등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어 소형기업들은 수익성 지속적인 수익성 약화로 인해 미얀마 등지로의 공장이전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정은 뉴욕무역관 과장은 “금융위기 이후 경기 급락, 소비패턴변화, 글로벌소싱환경변화 및 원자재 상승, 쿼터철폐 등이 미국 의류시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미국기업들은 ‘자체·독점브랜드 통한 제품차별화, 제고 및 가격 최소화, 소수정예 납품업체 선정’등을 통한 ‘경영효율 및 수익률’을 중시하는 양상

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최 과장은 현재 중국은 타국가의 납품업체 정보부족으로 오더가 넘쳐나고 있지만 중국위안화 절상 예상 및 생산환경변화에 대한 바이어들의 위기의식이, 복잡한 절차를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가질수 있는 납품업체를 찾기 위해 타국으로 소싱지 다변화를 꾀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바이어에 대한 인니내 우리기업들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중국, 인도, 터키가 주도하고 있는 ‘풀패키지 공급업체’의 역할로 도약을 위한 교민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때라고 결론지었다.



## ‘세계한인회장대회’ 최대 규모로 개막

- 76개국 한인회와 국내 관계자 500여명 참석
- 11월 모의선거, 2012년 참정권 행사 앞두고 관심 고조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한인회장들의 축제 한마당인 세계한인회장대회가 지난 6월 15일 오후 서울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막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미국과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물론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제르바이잔, 마다가스카르 등 세계 76개국 한인회 관계자 380명과 국내 인사 120여명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더 큰 대한민국, 더 큰 세계 한인’이라는 슬로건 아래 오는 18일까지 나흘간 계속된 이번 한인회장대회는 특히 2012년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와 오는 11월 치러질 재외국민투표 모의선거를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정치권 등 각계의 관심을 모았다.

이날 오후 4시 웨라튼위커킬 호텔 비스타홀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이번 대회를 주최한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올해 대회가 2000년 대회 시작 이후 최대 성황을 이룬 것은 동포 이민 역사 140년 만에 재외동포의 위상이 굳건하게 정립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116개국 700만 동포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하며 “오는 11월 주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등 모국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진 것도 재외동포들의 헌신적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앞서 있던 기자회견에서 재외동포 참정권 행사 시 원격지 투표 등 제약이 많아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투표 방식이나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합의된 대안이 아직 없다”면서 “동포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점과 원하는 선거 제도.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권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정정길 대통령 실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정 대표는 월드컵 그리스전 승리를 언급하며 “한민족의 위상이 지구촌 곳곳에서 떨치고 있다”면서 “모국 발전을 위한 동포들의 헌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고 원 위원은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뜻을 모으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힘을 결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때”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동포사회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뒤 천안함 사태를 거론하며 “정부의 대북정책을 이해하고 성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2000년 시작된 한인회장대회는 초창기 참석자 수가 200명 선이었으나 2007년 337명, 2008년 383명, 지난해 66개국 450명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 2010 아시아한인회 총연합회 대회 마닐라에서 개최

- ‘아시아는 하나다’ 방향 모색 열띤 토론이 이뤄져
- 내년 대회 개최지, 자카르타로 확정

아시아한인회 총연합회(회장 승은호) 2010년 대회가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3일의 일정으로 개최되었다. 대회 바로 전에 개최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세계자유연맹 및 아태자유연맹 총회로 인해 많은 회원국들이 참석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지만, 8개국에서 12명이 참석하여 필리핀 한인회에서 마련한 실내체육관에서 한국과 그리스의 월드컵 축구 예선 첫 경기를 함께 응원하면서 필리핀 교민들의 나라사랑 열기를 함께 호흡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한 필리핀 한인회 임원진들과 골프를 통한 친교의 시간과 함께 필리핀 한국국제학교 및 한글학교에 발전 기부금을 전달하였다.

‘아시아는 하나다’라는 슬로건 아래 창립된 아시아한인회 총연합회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총회에서는 열띤 토론이 이루어 졌으며, 승은호 회장께서 제안한 정치적인 모임이 아닌 만남과 교류를 통해 상호 도움이 되는 모임으로 발전시키자는 취지에 의견을 같이하고, 사무국은 회장국에 두며, 대회 개최는 매년 3월 3째주로 확정하고, 회원 가입 자격은 전, 현직 한인회장으로 지역한인회장도 포함하기로 결의 하였다. 또한 차기 대회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김경곤



김영도



김종성



구자성



노예범



안선근



이승민



이준하



이진호



장주현



전민식



진영휘

## 한인회, 신임이사 12인 선임

6월 1일 승은호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은 김경곤, 김영도, 김종성, 구자성, 노예범, 안선근, 이승민, 이준하, 이진호, 장주현, 전민식, 진영휘(이하 12명) 씨를 신임 한인회 이사로 선임했다.

금년 들어 대폭적으로 이사진을 새로 선임하게 된 배경은 최근 들어 직종이 다양해지고 젊은 층이 두터워 지고 있는 한인사회의 변화에 맞게 한인회의 신속하고 적절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새롭게 선임된 신임이사들은 한인사회의 대표·대변단체인 한인회 임원으로서 한인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수고하게 된다.

### 신임 이사 명단

성명	회사명
김경곤	SUKWANG INDONESIA
김영도	QUTY
김종성	PT. BONGMAN INTERNATIONAL
구자성	일요신문
노예범	PT. SAM PUTRA INTI
안선근	U.I.N UNIVERSITY
이승민	Y S M
이준하	DAELIM INDONESIA
이진호	JIN YOUNG
장주현	INKO PRIMA UTAMA JAYA
전민식	POWERTECH INDONESIA
진영휘	SK KERIS

## 한인회, 천안함 성금모금 전달

한인회는 천안함 침몰사고로 희생된 장병 및 유가족, 금양호 희생자를 한주호 준위 및 두명의 인도네시아인 선원들의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모은 성금 USD 2,100 및 Rp 262,000,000 중 우선 USD 20,000를 천안함성금모금 공식 접수 기관인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전달했다.

나머지 성금 모금액은 금양호 인도네시아 선원 2명(Yusuf Haaefac, Cambang Nurcahyo)의 상속권이 있는 유족에 대한 심사가 늦어지는 관계로 지연되고 있어 차후 유족이 선정되는 대로 한인회에서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뵙랑로 국립공원내 한국전통가옥이 건축될 대지에서 김호영대사, 줄키프리 하산 장관, 이상길 산림청 청장, 신기업 한인회 수석부회장 등이 착공 기념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 뵙랑오 국립공원내 한국전통가옥 짓는다

- 국립공원내 한국전통가옥 건립은 양국 친교의 상징적인 사건

인도네시아 서부자바주 짜보다스 지역에 위치한 뵙랑오(Pangrango) 국립공원에 한국 전통가옥이 들어서게 된다.

인도네시아에선 처음으로 짓게 되는 한국전통가옥은 지난 2006년 맺은 인도네시아 국립공원과 우리 자연휴양림간의 자매결연의 성과물로서 지난해 6월 한국 강원도 횡성에 소재한 청태산 자연휴양림에 인도네시아 전통가옥을 지은 데 이은 후속 사업으로서 지난 6월 30일 뵙랑오 국립공원내에서 개최됐다.

착공식에는 김호영 주인도네시아대사, 이상길 산림청 차장 및 줄키프리 하산 산림부 장관, 신기업 한인회 수석부회장, 승범수 코린도 사장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설계 및 시공을 맡게 된 현지 IdeA 건축사무소는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건축될 전통기와 및 기둥 등 한국의 전통가옥의 특징을 최대한 살리도록 노력하겠지만 건축 자재를 공수해 오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현지의 자재를 이용해 최대한 현대적인 미감을 접목해서 건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축사무소는 L자형의 형태에 2층 구조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김호영 대사는 작년에 완공된 청태산 자연휴양림의 인도네시아 전통가옥이 한국에 체류하는 인도네시아

분들 외에도 우리 국민들에게도 크게 인기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 전통가옥이 이곳에 지어지게 되면 우리 교민들은 물론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즐겨 찾는 명소가 되기를 기대하였다.

이상길 산림청 차장과 줄키프리 하산 장관은 “한국 전통가옥이 인니 국립공원내 건립되는 것은 양국 친교의 상징적인 일이다”며 상호간 우호 및 친교가 돈독해 지길 바랐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는 전통적으로 집을 지을 때 그 집에 놓는 초석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새기면는 공사가 잘 마무리 되고 그 집에 행운이 깃든다고 믿는다고 해 착공에 앞서 참석자들의 서명 행사도 곁들였다.





## 열대림 우량 묘목 생산위한 양묘센터 준공

인니 열대림 우량 묘목 공급을 위한 산림종자양묘센터 준공식이 지난 6월 29일(화) 보고르에 위치한 룬뽀(Rumpin) 센터에서 개최됐다. KOICA의 지원으로 준공된 센터 준공식에는 Julkiffi Hasan 인니 산림부장관 대변인과 김호영 대사, 이상길 산림청 차장, 최성호 KOICA 인니 사무소장 및 양국 산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양묘센터 준공은 인니 정부의 산림복구사업에 우량 묘목을 제공하고, 한국의 조림 진출 기업에게 열대림 정보 제공 역할을 수행하는 의미를 지니게 되며 특히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서도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인용하고 있듯 과거 전 국민적인 치산녹화사업을 통하여 국토를 푸르게 하는데 성공했던 한국이 산림대국인 인니에 선진 양묘 및 조림노하우 기술을 전수하는 매우 뜻 깊은 의미도 담고 있다.

준공식에 참석한 양국 관계자들은 87년 양국간 임업협력이후 지속적인 우호관계가 금번 양묘센터를 준공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특히 인니 산림부는 양묘센터 제공에 너무도 감사하다는 Julkiffi Hasan 인니 산림부장관의 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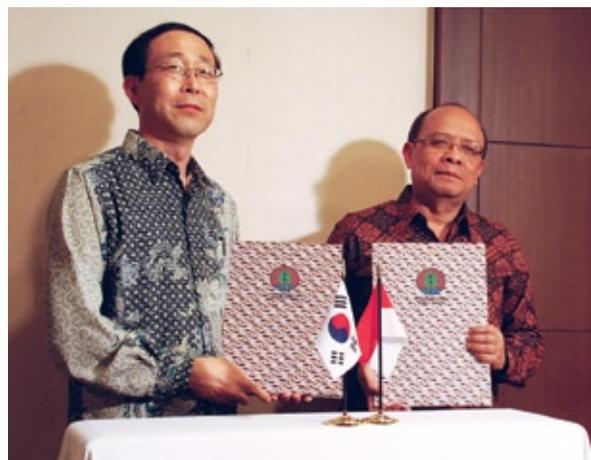
인니는 열대 산림자원 부국으로 한국 기업이 50만ha 조림을 위해 진출 또는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지역으로, 본 사업으로 수집된 열대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산림분야 경제협력에 기여하고 양국간 협력관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인도네시아 황폐지복구를

위한 종자관리동, 시험림 등이 완비되므로 향후에는 산림분야 교육훈련 및 산림복구를 위한 우량 묘목생산 센터로서 한국기업의 50만ha 조림을 위한 기술전수 및 묘목 생산기지의 역할도 기대된다.

KOICA와 한국 산림청은 열대림 임목종자 개발사업에 한국의 성공적인 산림복구 경험을 지속적으로 전수해 인니의 산림복구 능력배양에 기여하고 또한 인니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상업·바이오에너지·탄소배출권 확보 조림사업에 열대림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한편 같은 날 저녁 Julkiffi Hasan 인니 산림부장관과 김호영 대사, 이상길 산림청 차장, 최성호 KOICA 인니 사무소장, 승은호 한인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니 산림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실시 협의록을 자카르타에서 체결했다.





## 코참-KITA 협력방안 논의

한인상공회의소(이하 코참)은 한국무역협회(이하 KITA)와 지난 6월 7일(월) 12시 샹그릴라 호텔에서 업무협력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이왕규 해외마케팅 본부장과 한창희 차장, 송창근 코참 수석부회장 및 김은미 부회장, 이주한 사무차장이 참석했다.

KITA는 최근 거래알선, 인턴사업 및 동남아 Job Site 개설 등 활발하게 해외 네트워크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에는 협회 지부가 없어 인니 코참에의 협력을 요청했다.

KITA에서 전개하고 있는 글로벌 인력사업은 코참 회원사가 필요시 양질의 대학생 인턴을 매월 미화 300불 지급으로 6개월간 운영할 수 있어 인력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밝히며, 동남아 Job Site를 통한 인력 구인, 구직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KITA는 동남아 코참간의 협력이 이 지역 진출 한국기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코참은 지난 5월 발리에서 동남아 코참간의 협력제고 및 발전 방안에 관하여 개최된 무역장벽보고서 착수 워크숍 때 태국 베트남 등 4개국 코참과 이미 향후 지속적인 협력에 관해 합의한 바 있다.

코참은 역내 코참간의 상호 협력에 관하여 8월 20일-22일간 마카오에서 개최될 동남아 한상대회에 각국 코참 주요인사들이 모두 참석하는 만큼 향후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코참, 인니 상공회의소 방문

코참은 지난 6월 7일 오후 3시 KITA와 함께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KADIN) 회장 아디뿌뜨라따히르씨를 방문하고 회담을 가졌다.

아디 KADIN회장은 방문해준 것에 감사를 표하며 아시아 시장을 함께 키워나가자고 강조했다.

아디 회장은 특히 대기업뿐만 아니라 자체 인력이나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들을 성장시키기 위해 아시아 국가간 협력하자고 말하고 중국의 인니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타 국가들도 함께 성장해야 균형이 맞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국에서 개최될 G20에 참석하는 유도요노 대통령과 함께 KADIN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며 향후 전시회 정보 등을 공유하자고 전했다.

이날 회담에선 한-아세안 FTA에 관한 문제점도 논의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FORM AK 부분에 대해 한국 관세청에서 공급자로부터 모두 서명을 받아오게 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문제의 해결에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으며 KITA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한국정부측과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KITA는 KADIN의 홈페이지에 JETRO와 공동으로 거래알선의 기능이 있는데 KITA의 tradekorea.com과 협력해 거래알선을 활성화 할 경우 양국 무역발전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했고 KADIN측은 코참과 한국커미티가 이에 대해 자세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담 참석자들은 양국간의 협력 및 한 아세안 FTA 등에 있어서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문제점보다 더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 코참, 세무서 간담회 참석

지난 6월 15일 화요일 오후 인도네시아 세무청 본관에서 PMA1 세무서장(P.M. John Liberty Hutagaol) 주최로 관할 납세자인 139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무설명회가 열렸다.

매달 출신국가별 설명회(Sozialisasi)를 개최하고 있는 PMA 1 세무서는 관내 최대인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금번 설명회를 개최하고 한국기업들의 최근 3년간 납세 현황을 세금 종류별, 사업분야별로 납세액, 납세율, 세무자 수 등의 증감 추이등을 자세히 브리핑을 했으며, 이전가격(Transfer Price)과세제도 등 최근 인니 정부의 주요 세무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코참의 송창근 수석 부회장은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백여명의 한인 기업인을 대표하여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세무설명회 자리를 마련해 준 세무서장과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세무 문제가 매우 까다롭고 예민한 분야인 만큼 문제가 있을 시 우리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것 보다 코참 이름으로 정부에 제기하여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전했다.

송 수석부회장은 이어 한국기업이 납세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향후 포스코 등 한국 대기업의 진출과 봉제기업 등의 투자 증가로 재인니 한국기업의 투자규모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조찬 간담회 시간 등을 통해 앞으로 코참은 세무 담당자와 한인기업간에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대사관의 김남규 상무관은 한국과 인니간 무역 및 교류관계가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시각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세무관계는 상호 신뢰와 의사소통이 중요한 만큼 대사관의 국세관, 상무관, 및 관세관 등 뛰어난 전문 인력들을 활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존 후타가올 세무서장은 대사관과 코참을 비롯해 참석한 모든 한국기업인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세무문제가 있을 시 세무서에서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PMA 세무서는 사업분야별로 PMA 1에서 6까지와 PMDN으로 나누어져 있다.



## 최고의 물류항, ‘인천항’을 이용하세요

### - 인천항-자카르타항 물류증진 MOU 체결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한국무역협회 및 지식경제부는 공동으로 지난 6월 10일 자카르타 소재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인도네시아의 물류기업 및 선사, 화주, 포워더 등 120여명을 초청해 인천항 홍보마케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인천시와 인니 자카르타항만청은 인천항과 자카르타항을 이용하는 모든 선사 및 항만 중사자들에 대한 최고의 서비스, 양항만간 필요정보교환, 교류사업 추진협력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

인천시 항만물류담당 조영하 국장은 “인천항은 동북아 물류허브를 넘어 세계 중심의 물류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다. 인천항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양국 항만간 윈-윈 하자”며 인사말을 대신했고 인천시는 인천항 제반 물류 투자환경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인천항이 왜 동북아 물류의 중심지 인지를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 백재선 사무국장은 한국이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시아, 북미, 유럽국가를 연결하는 물류 거점항으로서의 지리적 요건과 현재 한국정부의 외국투자자유치에 적극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자유경제지역(FEZ)을 통한 세금감면혜택(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

면)과 자유무역지역(FTZ)을 통한 인센티브(법인세 및 소득세 3년간 50% 감면, 수출입 임가공 물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 등을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인천항만공사 이정필 마케팅 차장은 인천항이 컨테이너 화물과 관련해 한국 내 항만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경기 회복으로 인해 물동량이 4월 누계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37%가 증가하는 등 물류중심지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현황을 전달했다. 그는 또한 인천항이 세계항공화물 처리실적 2위인 인천국제공항과의 연계성을 통한 SEA & AIR 복합운송 특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비용절감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참석한 인도네시아 관계자들은 인천시의 인천항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략과 물류허브 중심지로서의 인천항이 미치는 경제효과 등에 대한 질문들을 쏟아내며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9일 인천시는 자카르타 현지지출 물류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지진출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한국의 물류투자환경 개선과 투자홍보 전략에 대한 담화를 나눴다.



박금철 씨 대통령표창 전수식에 회사 많은 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쁨을 같이 했다. 사진 왼쪽부터, PT. Kideco Jaya Indonesia의 정수복 과장최병현 이사, 하형소 노무관, 김호영 대사, 박금철 씨, 이창훈 전무, 박동규 이사, 하길용 이사.

## 박금철씨 유공근로자 대통령표창 수상

박금철 씨(PT. Sims Jaya Kalim : KIDECO계열사)가 근로자의 날을 맞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표창 전 수식은 어제 지난 6월 9일 오전 한국대사관 접견실에서 김호영 대사에 의해 거행되었다.

박금철 씨는 광구개발 전 폐석도급을 담당하는 기장으로 13년간 인도네시아 오지인 깔리마판 과시르 광산에 근무하면서 평소 철저한 예방정비를 통한 장비의 가동시간 극대화 및 근로자의 산재예방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또한 인니 근로자들과의 화합 및 애사심 고취,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점이 인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

박금철 씨는 ‘부족한 자신이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된 것에 너무도 놀랐고 또 감사하다’며 큰 상이 부끄럽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회사와 가족, 대사관 관계자들과 영예를 함께 나누고 싶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매년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 실시되는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에 대해 하형소 대사관 노무관은 ‘국내외 근로자 중 기업발전을 및 노사화합에 공이 큰 모범근로자를 선정,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과 노사관계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 장미회 친목 골프대회 열어



인도네시아 외환은행 장미회 (회장 조규철)는 2010년 6월 25일 제 27회 장미회 골프대회를 에머랄다 골프장에서 가졌다. 14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본 행사에는 40개 업체 45명이 참석하여 회원사간 정보교환은 물론 긴밀한 친목도모의 장이 되었다.

인도네시아 외환은행 장미회는 외환은행 주요 거래선들의 친목도모는 물론 기업경영에 관한 현지체험 등의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1996년 최초 결성하여 매년 2회 정기적인 골프모임을 통해 회원사 상호간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외환은행은 장미회를 더욱 확대 발전시키고자 신규회원가입을 희망하는 업체를 환영하고 있다.



중부자바 지역의 봉제와 가구 등 업종에 종사하는 50여 한인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1일 스마랑 그랜 잔디 호텔에서 대사관 주최 경제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 대사관, 중부자바 지역 ‘경제설명회’ 개최

김호영 대사를 비롯한 한국대사관 경제팀이 7월 1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스마랑시(市)를 방문,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인업체를 대상으로 주재국의 급변하는 정책을 알렸다.

중부자바 지역의 봉제와 가구 등 업종에 종사하는 50여 한인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1일 스마랑 그랜 잔디 호텔에서 열린 설명회에서는 김동일 국세관, 이득수 관세관, 하형소 노무관 등이 각 분야별로 최근 인도네시아 당국의 새로운 정책을 설명했고, 한인기업인들은 애로 사항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어 코트라 자카르타 KBC의 김락곤 차장은 최근 의류시장 동향과 무역관 사업을 안내했다. 설명회 진행되는 동안 이영곤 영사는 순회 영사서비스를 제공했다.

김동일 국세관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조세피난처를 줄이기 위해 홍콩 당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해 상호간 기업의 금융계좌와 소득정보 등의 교환을 활성화하는 추세이며, ‘이전가격과세제도(Transfer Pricing)의 틀을 갖추고 이 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득수 관세관은 “주재국 관세청이 2007년부터 인적자원과 전산화시스템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발효 3주년을 맞은 한-아세안 FTA 활용도 제고에 대해 설명했다.



대사관 경제팀은 PT 인꼬자바와 스마랑가먼트를 방문해 기업현황을 듣고 생산현장을 둘러봤다.

하형소 노무관은 인도네시아 노동환경, 주요 노동법 사례를 설명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인도네시아 지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국인 채용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했다.

김재훈 중부자바지역 한인회장은 “한국대사관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지역을 찾아와 설명회를 열어 기업활동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특히 김 대사님의 격려와 지원으로 기업인들의 사기가 한껏 올랐다”고 말했다.

이튿날 대사관 경제팀은 PT 인꼬자바와 스마랑가먼트를 방문, 기업현황을 듣고 생산현장을 둘러봤다.



## 한바다호, 자카르타 입항

- 교민들 '열띤 환영'에 '자부심 드릴 것'으로 화답

아시아 실습 순방에 일정에 있는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 '한바다 호'(선장 배영덕)가 지난 5월 18일 부산을 출항 일본과 중국에 이어 지난 6월 8일 오전 자카르타 탄중쁘리옥 항에 입항했다. 금번 '한바다 호'의 입항은 지난 2007년 자카르타와 이듬해 2008년엔 수라바야 입항 후 세번째다.

입항소식을 듣고 이른 아침 탄중쁘리옥 항에 모인 한인 학생 및 200여 교민들은 '한바다 호'가 서서히 입항하자 태극기를 흔들며 맞이했고 자카르타 해양대학 군악대도 힘찬 군악연주로 동료들의 입항을 축하했다. 정복을 한 '한바다 호' 실습생들은 멋진 선상도열로 큰 환대에 답했다.

인도네시아 교통부 및 항만청 관계자들이 입항식에 참석해 큰 관심을 나타내며 인도네시아 일정 동안 한-인니 양국 해양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하자고 전했다. 교민 언론사 및 현지 언론사들의 열띤 취재도 축하열기를 더했다.

입항식에 참석한 주인니한국대사관 김호영 대사는 "해양은 그 넓이와 깊이만큼 무한한 기대와 가능성을 인

류에게 전해준다"며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달라"며 환영의 말을 전했다.

이에 배영덕 선장은 뜨거운 환대에 감사를 전하며 "원양 실습은 실습생들에게 항해사가 되기 위한 이론과 실무 연마 기회 외에도 외국에 대한 견문 습득과 대학 간 교류 증진 등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고 "해양강국 이미지 알리기와 교민들에게 애국심과 자부심의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교민들은 입항식 후 '한바다 호'에 방선, 실습생들의 안내로 조타실 및 내부 곳곳을 관람하고 '한바다 호'에서 직접 준비한 오찬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선내를 직접 관람하고자 하는 교민들을 위해 9일 '한바다호'를 개방했다.

전장 117미터 세계 최고 규모와 첨단시설을 자랑하는 '한바다호'는 2001년 우리 기술로 건조되었다. 실습 학생 87명, 교직원 40명 등 127명의 승선팀은 12일까지 자카르타에 머물며 자카르타 해양대 및 항만청 방문, 교민학생 및 교직원 초청 바베큐 파티 등 일정을 소화하고 필리핀으로 출항, 6월 29일 부산항으로 귀항했다.



## 한인사회, 실종학생 긴급수색지원대책 회의 열어

지난 6월 17일 대사관에서는 대사관 및 유가족대표, 한인회, 상사협회, 민주평통, OKTA 등이 모여 지난 8일 영국국제학교(BIS) 야외수련회 현장학습 도중 계곡개울을 건너다 갑작스런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김세형 학생의 수색지원대책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국가재난구조팀을 중심으로 경찰, 군인,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수색팀들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김세형 학생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지원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지속적인 협조를 해 나갈 것에 중지를 모았다.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교민사회 내 사건사고에 대한 한인사회 중심의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대책반 구성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 동의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범 한인사회적 대책반을 준비하는데 합의했다.

인니 국가재난구조팀의 공식적인 수색작업이 사고 발생 후 일주일간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대사관과 유가족 등의 요청으로 29일(화) 까지 연장 운영되었지만 아직 찾지 못한 상태이다.

## 한국무역협회, 현지진출 물류기업 간담회 개최

2010년 6월 9일 (수) 오후 6시 한식당 한솔에서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자카르타 현지진출 물류기업 간담회가 열렸다.

한국무역협회는 인천시, 인천항만공사와 공동으로 2010년 동남아 포트마케팅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포트세일즈를 개최하였으며, 코참의 협력으로 한인도 익스프레스(신기업 대표) 비마루나(최윤영 대표), 판토스(황선도 대표), 위카사(설승원 대표) 등 자카르타 주요 물류기업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지고, 인도네시아 물류시장 동향 공유와 물동량 유치방안을 논의하고 현지진출 물류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였다.



조영하 인천광역시 항만공항물류국장은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준 현지진출 물류기업 대표들과 대사관 건교관 그리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준 신기업 한인회 수석부회장, 송창근 코참 수석부회장 등 모든 참석자에게 감사를 표하며 수렴한 현지업체 애로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해외 진출하신 물류기업체에 꼭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올해 초 땅그랑 외곽에 위치한 찌뜨라 라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을 돕고자 오픈된 무지개 공부방 현재 문이 현재 굳게 닫혀 있는 중이다.

또한 공부방 오픈을 계기로 여러 교민들의 정성 어린 노력으로 진행되었던 교육프로그램들도 거의 중단된 상태이고 몇몇 교육만이 무지개공부방 교장인 고재천 선교사의 자택에서 이뤄지고 있다.

고재천 선교사는 지난 5월에 일어난 일에 대해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고 선교사는 갑자기 공부방에 들어 닥친 경찰들에게 연행되고 관할 경찰서에서 몇 시간의 조서를 받아야만 했다. 무료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교육기관으로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점은 엄연히 불법이라는 점이 연행의 이유였다. 고 선교사는 선처를 바란다는 대사관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몇 시간 후에야 겨우 경찰서를 나올 수가 있었다.

4년전 고재천 선교사 부부의 노력으로 시작된 무지개 공부방이 지난 2월 한인사회의 지원으로 루고를 임대하고 교육시설들을 갖춰 새롭게 태어났었다. 하지만 오픈된지 6달이 지나간 지금 무지개 공부방 문은 굳게 닫혀있는 중이다.

## 굳게 닫힌 무지개 공부방 다문화자녀 마음도 닫힐라

- 허가 없는 교육기관내 무료교육은 불법
- 취업비자 없는 무료봉사도 불법

이러한 일이 있는 후 취업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의 무료 교육행위도 불법으로 간주된다는 법 적용에 봉사자들의 활동 또한 중단될 수 밖에 없었다.

고 선교사 및 몇몇 자원봉사자들은 “한국인 2세 이긴 하지만 인니 국적의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치는 것도 불법행위로 간주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며 혀를 내둘렀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되돌아오는 말은 결국 허가를 정식으로 받고 교육을 하라는 말뿐이었다.

현재 고 선교사는 정식 교육기관으로서 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빠르면 두 달 내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봉사자들의 정성이 다문화 가정 2세와 한인사회와의 중요한 가교역할을 해왔었는데 봉사자들이 취업비자를 취득해가면서까지 무료교육봉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 이 나타나며 근심 섞인 목소리를 토해냈다.

한인사회가 책임감을 느끼며 한마음으로 지원했던 무지개 공부방에 불거져 나온 운영 자체의 어려움이 활짝 열려졌던 자녀들의 마음을 닫히게 하지나 않을까 우려가 된다.

# 무료 합동결혼식

**일 자 :** 2010년 7월 29일  
**장 소 :** Lapangan Ahmad Yani, Kota Tangerang  
**접수일 :** 2010년 7월 10일까지  
**접수처 :** 땅그랑한인회 사무실 (무궁화2층)  
**자 격 :** 현지인중 가정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못한 부부 (50쌍)  
**“심사 후 최종 참가자는 개별통보 합니다”**



저희 땅그랑 한인회는  
 불우 이웃돕기 사업으로  
 현지인 합동결혼식을  
 땅그랑 지역신문사인  
 SATELIT NEWS와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교민분을 직원중에서  
 참여의사가 있는경우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EAN ASSOCIATION**  
 TANGERANG • BANTEN • INDONESIA

Office: Blok L, No 5 Lippo Karawaci Office Per, Tangerang Indonesia  
 Tel: (021) 5537-5555 Fax: (021) 5537-8885 E-mail: kartin Tangerang@korea.com

## 땅그랑한인회, 현지인 부부 합동결혼식 추진

지난 2월 1일 창립이후 교민들의 단합과 권익보호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땅그랑 한인회(회장 이세호)가 현지인 동거 부부 합동결혼식을 추진한다.

땅그랑 지역신문사인 Satlit News 사와 함께 진행되는 현지인 부부 50쌍 합동결혼식은 오는 7월 29일 땅그랑시의 Lapangan Ahmad Yani에서 가족과 친지들이 참석할 가운데 치러지게 된다고 땅그랑 한인회는 밝혔다.

실제 결혼해 동거하고 있으나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현지인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합동결혼식은 지역사회의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 지역 교민들과 현지인들 사이의

진정한 친교의 장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땅그랑 한인회의 노력의 일환이다.

땅그랑 한인회는 현지인을 고용하고 있는 한인 업체들에 금번 합동결혼식에 부합하는 부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각 교민업체들의 추천과 각별한 관심을 촉구했다.

합동결혼식에 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땅그랑 한인회 수석 총무인 이태복 씨에게 연락하길 바란다.

(연락처: 이태복 0811-969-1190)



우리은행 이순우수석부행장과  
고객과의 간담회

우리은행 고객사는 행사에서 고객과 인사하고  
있는 우리은행 이순우 수석부행장



## 우리은행, 130여 고객 초청 사은행사 개최

인도네시아 우리은행(행장 이민재)은 지난 6월 25일 한인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주요 고객 및 교민 사회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고객 및 교민 초청 사은행사를 개최했다.

이순우 우리은행 본점 수석부행장 및 주요 경영진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개최하게 된 사은행사는 이날 오전 우리은행 씨부부르 출장소 개소식과 더불어 고객간담회를 갖고 고객들의 환대에 감사를 표했다.



우리은행 씨부부르 출장소 개소식(2010. 06. 25)

또한 장소를 옮겨 까뻍 골프클럽에서 고객사는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골프대회에는 김호영 대사 및 승은호 한인회장, 우리프레스티지클럽 이진수 회장 및 한인회, 고객사, 부인회 등 13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골프대회 후에는 저녁 만찬을 열고 특히 인도네시아 우리은행은 본 은행이 주관하고 있는 우리장학회에 미화 10만불을 기증해 참석한 고객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민재 행장은 ‘우리장학회는 은행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의 하나이며,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사랑나눔 활동을 통해 우리은행이 사회공헌 활동의 모범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현재 인도네시아 우리은행은 영업점 확대 등 자체성장과 M&A를 통한 대형화 추진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 월드옥타 인도네시아, 제3기 차세대무역스쿨 실시

월드옥타인도네시아(김우재회장)는 지난 6월 25일부터 3일간 자카르타에 위치한 그랜멜리아 호텔에서 제3기 차세대무역스쿨을 개최했다.

무역스쿨은 경제, 금융, 세법, 법률, 주식, FTA 관련정보, 비즈니스 및 마케팅 성공사례, 보험, 한국정부 대외경제정책등 차세대 경제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다방면에 관한 지식들을 15명의 전문 강사진으로부터 직접 듣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

3일간의 무역스쿨의 모든 일정을 소화해낸 50명의 수강생들은 세계 각국의 차세대간 네트워킹을 할수있는 기회를 얻어 매우 가치있는 교육이었다고 평가했다.

수료식에는 김호영 대사, 아굽 구멜라 퇴역 육군대장겸 재향군인회장, KBC 김재한 센터장, 김재영 수출입은행장, KOWIN 회장 등 다수가 참석해 수강생들의 수료를 축하했으며 전문적인 경제 사관생도로 나아가길 바랐다.

특히 아굽 대장은 인도네시아내의 인니인 전문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 상태인 지금 한국의 젊은 리더들이 인도네시아 경제와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월드 옥타 인니지회, 정기총회 및 골프대회 개최



인도네시아지회 김우재회장과 전 회원은 지나 5월 25일 상반기 회원친선 골프대회와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에서는 6월에 개최되는 차세대무역스쿨을 완벽하게 운영 하기 위하여 회장단과 이사진 전원 협력하여 수행 하기로 하였다.

한편 World-Okta 인도네시아의 고문인 인도네시아 국회의장이 함께 참여하여 차세대무역스쿨 졸업식에서 차세대들에게 격려 말씀을 해 주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월드옥타 총회에도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회장과 이사장 선거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 이지현

수디르만 로타리 클럽 2대 회장



‘봉사’란 무엇이죠?

‘사랑의 표현입니다’

‘봉사는 왜 하죠’

‘봉사의 기회를 만들기 위함이죠’

‘봉사를 통해 무엇을 얻죠?’

‘주는 것을 통해 내가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6월의 어느 날 인도네시아에 첫 한국인 로타리클럽으로 탄생한 ‘수디르만 로타리클럽’의 두번째 회장직을 맡고 있는 이지현 회장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봉사’의 의미를 거침없이 토해냈다. 그는 7월 1일 이면 신임 회장에게 봉사의 정신을 물려주고 회장직을 물러나게 된다. 이지현 회장은 1년이라는 짧은 임기 동안 클럽회장으로서 얻은 것이 있다면 ‘봉사의 방법을 찾아내 너무도 기쁘다’고 한다.

2년 전 수디르만 로타리클럽이 첫 한인사회에 그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는 그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협력관계를 만들어내는 모임인줄로만 알았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그의 눈엔 대의를 향한 ‘봉사’ 이전에 ‘사교클럽’의 이미지를 떠올렸었다. 가입회원들의 업종은 대부분 달랐고 그러한 다양성을 바탕으로 정보 취합과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접한 그는 자신의 사업 확장을 위한 발판쯤으로 여겼다.

당연히 로타리 클럽 강령에 따라 행했던 그 당시의 봉사에 대해 그는 그저 클럽 활동의 일부분으로서 해야만 하는 허드렛일 정도와 막연하고 의무적인 봉사로 여겼다. 적어도 그에겐 봉사에 대한 소명의식은 없었다. 적어도 그랬다.

하지만 그는 출석과 연회비, 봉사활동, 전세계적 이슈 동참 등 국제적인 자체 의무사항을 지니고 있는 로타리클럽의 생활들이 ‘막연한 사교적 모임’에서 점점 그 자신을

자연스럽게 해방시켰다고 말한다.

아직은 이불 속에서 곤한 잠을 청해야 할 이른 새벽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만 했던 조찬모임, 계다가 회원들이 번갈아 가며 자신의 직종에 관한 최신 동향 및 전망 등을 내놓아야만 했던 미팅들은 초창기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지만 의지 반, 의무 반으로 견어낸 생활들이 지금은 빠지기엔 너무도 서운한 일과로 변해버렸다. 그리고 클럽활동 생활의 중심에 ‘봉사’의 자리가 슬며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는 어느 정도 사업의 안정을 찾고 있던 10년 전 어느날, 문득 생업 외의 다른 근사한(?)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적이 있다. 하지만 어떻게? 막연히 떠올린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그의 생각들은 그저 상상 속에서만 끝났었다.

로터리 클럽 활동을 시작하고 난 후 어느 시점에서 봉사에 대한 그의 막연했던 생각들이 점점 구체화 되기 시작했다. 의무로 시작했던 봉사활동 속에서 그는 땀 흘린 자신의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뿌듯함을 느꼈다. 봉사를 통해 주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음을 알게 됐고 봉사의 진정성에 점점 눈을 뜨게 됐다.

봉사의 방향에 있어서도 ‘집중과 선택’의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세계사의 기적으로 불릴 만큼 불과 몇 십 년 만에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한국의 저력을 로터리 클럽은 ‘교육’으로 파악하고 현지 문맹률 타파를 위한 ‘교육’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남부 수마트라 빠당지역을 강타한 강진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을 때 로터리 클럽은 재빠르게 전지역 소프라노를 초청, 자선공연 계획에 집중했다. 수디르만 로터리 클럽 창립 이후 벌인 최대의 사건(?) 이었다. 반신반의 했지만 공연은 대단한 성공을 거뒀다. 350여 교민이 참석해 약 2만 달러의 성금을 모으는데 성공했다. 그 후 빠당 피해지역 조사를 통해 알게 된 Femina 그룹의 폐허학교 복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책걸상, 칠판, 책 수납장 등을 직접 구매해 입점(?)시키는 등 학교를 잃어 수심에 잠겼던 아이들의 얼굴에 환한 희망을 안겨주었다.

올해 책 읽는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인도네시아 학생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계획했고 현재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다. 로터리 클럽은 현지 학교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학생들이 양질의 도서를 마음대로 읽을 수 있게 하는 ‘이동도서관’ 봉사활동을 계획했다. 기획안이 나오자마자 차량지원과 도서 후원이 무서운 속도로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드디어 6월 수백 여 권의 도서를 탑재한 ‘이동도서관’ 차량이 운행하기 시작했다.

로터리 클럽은 앞으로 이동도서관 2호, 3호, 4호 차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로터리 클럽은 이 외에도 밥퍼사역 동참, 의료봉사, 장학금 지원, 메단 수녀원 지원 등 지○원이 필요한 곳이면 먼길 마다않고 즐거이 참여하고 있다.

이지현 회장은 메단에서 온 한 장의 사진을 보고 눈시울을 붉혔다고 한다. 사진 속 두 수녀님이 예전에 로터리클럽에서 후원한 오토바이 위에서 너무나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었기에...

그는 그 자신도 봉사의 시작과 중간 그리고 현재를 지나오면서 많은 변화의 상태를 느끼게 되었기에 봉사는 ‘일회성 보다는 지속적이고, 중복되지 않도록 조직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봉사는 언제 해야 하죠?”

“돈 벌고 나서 하려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또 기꺼이 해낼 수 있는 능력 한도 내에서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죠. 안 하는 것 보단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봉사란 ‘사랑의 표현’ 그리고... 그 방법과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

# 별과 달이 비추는 오지의 마을



## 발리 섬의 두 전통마을



김성월

수필가 · 방송 프리랜서  
hansol0508@hanmail.net



### 발리의 독특한 장례풍습 뜨루난

발리 섬에 가면 조상들이 물려 준 풍습을 후손들이 구기지 않고 잘 이어가는 전통마을이 많다. 그런 마을은 대부분 깊숙하게 들어가야 만날 수 있다. 전통마을 중에서 장례풍습이 독특한 ‘뜨루난’과 조경이 아름다운 마을 ‘빵리뿌란’을 소개하고자 한다.

뜨루난(Terunyan)은 “따루와 머난(Taru dan Menyan)에서 가져 온 마을이름이다. 마을 위치는 깐따마니의 바투르(Batur)호숫가에 다소곳이 자리 잡고 있다. 그 마을에는 ‘따루머난’이라는 엄청난 거목의 향나무 한 그루가 있다. 그 나무에서 향기가 너무 진동하여 그들의 조상들은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의 향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죽은 개를 나무 밑에 놓아두었다. 이상한 일이다. 시일이 지나도 죽은 개가 부패하여 썩는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 그들은 그 나무가 신성하다고 믿고 그 나무 아래 사람들의 시체를 놔둘 수 있게 해달라고 신께 기도드렸다. 그 후부터 그들은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지고 있다. 뜨루난의 이런 장례풍습을 ‘머빠사(Mepasah)’라고 말한다.

뜨루난의 무덤(kuburan)은 세 종류가 있다. 와야 무덤

(Kuburan Wayah) 응우다 무덤(Kuburan Nguda) 반따스 무덤(Kuburan Bantas)이다. 와야 무덤은 무병장수한 분들만 놓아두는 곳인데 시체를 나무 아래 놓아두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 응우다 무덤은 어린아이부터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까지가 묻히는 곳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반따스 무덤이다. 이 무덤은 교통사고나 자살, 또는 병으로 목숨을 잃은 쉽게 말하자면 제 삶을 다 살지 못한 이들의 무덤이다.

와야 무덤에는 시체를 놔두는 11구 장소다. 예전에는 위에 5구, 아래 6구를 놔두었다. 살아생전에 마을을 위해 공을 세운 분들은 위에 평민들은 아래 두는지 지금은 모두 나란히 둔다. 시체는 땅에서 약 20cm의 높이로 해두고

주위에 작은 도랑을 파 둔다. 비가 오면 물이 고이지 않고 흘러내리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시체를 짐승들로부터 훼손을 막기 위해 대나무를 엮어서 덮어 두는데 이걸 안작사지(Ancak saji)라고 한다. 시체는 몸은 천으로 감싸고 얼굴은 위로 보이도록 위로 해 둔다. 그 이유는 죽은 것이 아니라 평상시처럼 잠자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죽은 이를 땅 속에 묻지 않고 바람에 의해 사라지도록하는 이 풍습을 두고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취재를 위해 갔던 그날은 보름 전 세상을 뜬 81세 할머니가 천에 싸인 채 하늘을 보고 누워 있었다. 그들이 잠자고 있다기에 정말 그런가, 해서 그 할머니의 얼굴을 나는 가만히 들여다봤다. 촬영된 영상을 편집하면서 보니 화면이 조금씩 흔들렸었다. 이유는 카메라맨이 대나무 사이로 클로즈업하기 위해 렌즈를 갖다 대었더니 시체가 살아 움직여서 무섭고 떨려서 그랬다고 말했다. 발리는 신들의 나라이니까. 나는 그 발리인의 말을 믿어준다. 그런 경험을 나는 칼리만탄(kalimantan)섬 반자르마신에서 툭툭히 치룬 적 있다. 지금도 언제 어디를 가더라도 취재현장에서 나는 꼭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뜨루난 마을에는 약 250가구가 있고 주민은 700여명 정도 살고 있다. 무덤은 약 11개뿐인데 마을에서 공로를 세운 분은 위쪽 평민은 아래쪽, 그러나 지금은 11구 시체를 나란히 놓아둔다. 머리는 북쪽으로 두고 11개 장소는 리필이 된다. 가장 오래된 유골을 꺼내고 그자리에 금방 죽은 시체를 넣어 둔다. 아주 오래된 유골은 저절로 없어지고 현재 그곳에 있는 해골은 약 200여개 정도인데

잘 정리된 해골들은 마치 관광객들에게 인사라도 하는 표정들이었다.

나는 어딜 가나 궁금한 것이 많아 늘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본다. 때론 알맞은 질문을 하여 희한한 대답을 듣기도 한다. 그도 나는 마을 동장에게 수많은 관광객들 중에 간혹 나쁜 사람들이 있어 죽은 자들의 폐물이나 그 외 것들을 훔쳐간 적이 있는지 물어봤다. 그랬더니 독일 한 관광객이 그곳에 있는 해골 하나를 몰래 가져갔다가 다음 날 돌려주었다고 했다. 이유는 해골을 가져가 호텔방에 두고 잠자는데 밤중에 해골이 마구 움직이더라. 혼비백산한 독일인은 다음날 뜨루난으로 와서 해골을 돌려주면서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

뜨루난을 관광지로 만들고자 발리관광청에는 보트의 가격을 정해 두었고 주민들이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하고 있었다. 뜨루난 마을에서 돌아 올 때 반대편에 있는 온천을 구경하고 와도 보트비용은 같다. 가급적이면 처음에 보트탈 때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이 좋다. 그곳에 갈 때는 오전에 가는 것이 경치를 보는 것에 좋다 오후가 되면 운무가 내려앉아 풍경이 잘 보이지가 않는다.

다람쥐도 쪼르르 뛰어다니고 산새소리도 아주 선명하게 잘 들리는 그곳, 웬지 나는 그곳에서 두 세상을 한꺼번에 만나는 느낌이였다. 그 뭐랄까, 형언하기 힘들면서도 자꾸 설명하고 싶어지는 느낌을 내 글재주로는 도저히 정확하게 묘사해 낼 수가 없다. 아참, 뜨루난에서 들리던 새소리는 아주 맑으면서도 날카로워 전화벨 소리에 길들여진 내 둔탁한 청각을 섬세하게 조율하여 주기도 했다.

## 아름다운 마을 빵리뿌란

빵리뿌란(Panglipuran)마을은 아직까지 발리 사람들에게나 관광객들에게 그리 알려지지 않는 곳이다. 파도가 바위를 만나면 하얗게 질려 물거품으로 변하는 울루와뚜(Uluwatu) 절벽이나 사람들이 비키니차림으로 아무데나 나뒹굴어 있는 꾸따(Kuta)해변과는 달리 빵리뿌란마을은 동공이 넓어질 눈요깃거리가 없다.

## 별과 달이 비추는 오지의 마을

그러나 더불어 사는 세상의 단면을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라 나는 여긴다.

빵리뿌란마을은 바뚜르화산 언저리에 자리 잡고 있다. 마을에는 해발 600미터이며 바웅그데(Bayung gede)에서 분리된 마을이며 약 70가구가 살고 있다. 집집마다 대문의 크기는 높기와 넓이가 똑같다. 마을 조경은 트리 만달라(Tri Mandala)로 되어 있다. 북쪽은 성스러운 곳이라 하여 힌두제단 북쪽에서 남쪽으로 집들이 35채씩 영쪽으로 나란히 지어져 있고 동쪽과 서쪽으로 집이 마주보고 있다. 대문역시 앞집과 마주하고 있다.

대문에서 장정 남자가 허리춤에 손을 얹어 서도 무방한 넓이다. 발리 아녀자들은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다니는 풍습이 있는데 물건을 담은 광주리가 원활하게 잘



돌아돌린 마루로 된 발라이(Balai)가 있다. 그곳은 예전에는 죽은 사람 시체를 두기도 했고 다용도로 사용된다.

빵리뿌란의 집들은 이웃집과 서로 통할 수 있도록 담을 터 두어야 한다. 뒷집에서 아랫집으로 가는 길은 골목길 다니듯이 쉽게 다닐 수 있었다. 담을 터 두는 이유는 이웃시간에 서로 하모니가 되어야 하기 질투와 시기심을 없애기 위함이라 한다. 빵리뿌란의 마을 주민들 특히 젊은이들은 몸에 문신을 새기면 안 된다. 마을로 잡상인 출입이 금지되고 마을 분위기는 정숙하고 깔끔하게 정리된 모범마을이었다. 하긴 마을 촌장을 만나 이야기해 보니 조용한 말투에 함께 하는 동안 얼굴에는 구리빛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다.

발리 사람들은 자녀들 이름을 미리 정해 두었다. 첫째 이완(Iwan) 둘째 능아(Nengah) 셋째 뇨만(Nyooman) 넷째 쾀똥(Ketut) 이런 순서다.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몇 번째 자녀라는 걸 알



빵리뿌란 마을 도로

드나들 수 있는 넓이와 높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궁금하면 집의 안방 문을 열어 놓고 실험해보면 된다. 대문 기둥은 벽돌로 쌓아서 만들어졌고 지붕은 대나무를 잘라 만들어 기왓장처럼 덮어 두었는데 내 눈에는 마치 물고기비늘처럼 보였다. 그런 모형을 빵리뿌란 사람들은 ‘앙쿨앙쿨(Angkul angkul)’이라고 한다.

수가 있다. 그렇다면 다섯 명을 낳으면 어떻게 될까. 다섯 번째는 첫 번째 이름을 사용하고 여섯 번째는 두 번째 이름을 사용한다. 자녀는 수없이 낳을 수 있지만 이름은 되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날 낮잠 자다가 일어났지만 전통복으로 얼른 갈아입고 마을에 대하여 찬찬히 설명해 준 촌장은 이완수뽀(Iwan supat)였다.



김은미 편집위원의 추천 도서

# 그 개는 무엇을 보았나?

머스터드는 10가지가 넘는데 왜 케첩은 1가지뿐인가?

윌스트리트의 이단아, 나심 탈레브는 어떻게 투자에 성공했는가?

염색제 광고에 숨겨져 있는 미국 여성사의 비밀은?

피임약 개발자도 몰랐던 여성의 몸과 마음의 정체는?

유방조영술과 항공사진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

‘위축’과 ‘당황’의 심리적 차이는?

보기만 해도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다양하면서도 시시콜콜한 질문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유쾌한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독창적 사례들.

<윌스트리트저널> 선정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사상가(2008년)’와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2005년)’ 반열에 오른 세계적 저널리스트인 글래드웰은 다른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특별한 사례를 끌어와 다른 사람들이 감히 시도하지 않았던 글쓰기 방식으로 그만의 글쓰기 세계를 구축한 시대의 아이콘으로 부상했다.

그 개는 무엇을 보았나라는 책의 제목은 개 심리학자인 시저 밀란의 이야기에서 따온 제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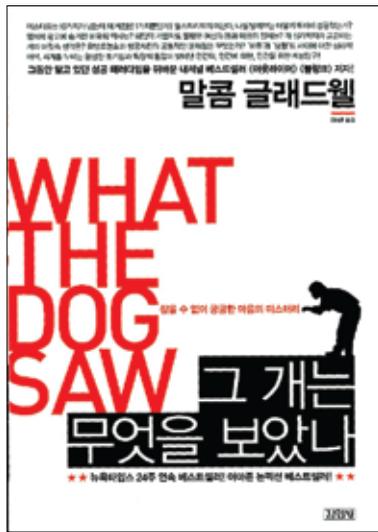
광폭한 개를 손만 대어도 온순하게 만드는 시저 밀란이 개의 심리를 완벽하게 읽어내는 그 순간 개의 머릿속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하는 의문으로부터 이 책은 시작되었다.

이 책은 글래드웰이 1996년부터 기자로 일하고 있는 “뉴욕커”에 실었던 수많은 칼럼과 기고문, 기사 중에서 그를

대표할 수 있는 19개의 꼭지를 주제별로 가려 뽑은 지식 앤솔러지다.

1부는 ‘마이너 천재’라고 부르는 외골수들의 얘기를 다룬다. 마이너 천재란 글래드웰의 글에 꾸준히 등장해온 ‘중간 그룹의 인간형’을 뜻하는데, 그 주인공은 아인슈타인이나 윈스턴 처칠, 넬슨 만델라처럼 세계사에 우뚝 선 위인이 아니라, 채소 절단기 참-오-매틱을 판매한 론 포페일같은 사람이다.

2부는 사회현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즉 사회현상을 통해 글래드웰만의 이론을 정립하고 현실을 진단하며,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숙자 문제나 회계 부정, 챌린저호 폭발 같은 재난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 그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해결책과 해석을 제시한다.



말콤 글래드웰 지음 | 김태훈 옮김 | 김영사 출판

3부는 타인을 판단하는 일에 얼마나 허구가 많은지, 인간의 성격과 인격, 그리고 지능을 결정짓는 요소에 딛은 없는지를 파헤친다. 글래드웰에 따르면 우리가 타인을 나쁘다, 똑똑하다, 혹은 유능하다 그리고 그냥 좋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그다지 논리적인 것이 아니다. 출간하는 책마다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올리는 말콤 글래드웰의 가장 큰 매력은 세상과 인간에 대해 우리가 짐작할 수 없었던 다양한 이슈를 찾아내어 분명하고 명확한 필력으로 표현하는 데 있다고 보여진다. 타인에 대한 호기심을 흥미로운 이야기로 엮어낸 이번 책에서 그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타인의 마음에

대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을 전제로 인간 심리에 대해 그동안 접해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세상을 펼치고 있다. 염색약과 케첩, 노숙자 등 이야기의 소재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호기심을 느끼기에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이런 주제들이 말콤 글래드웰의 머리에서 색다른 소재로 탈바꿈하고 다시 그의 손을 통해 흥미로운 이야기로 재탄생하는 것을 읽고 느끼는 동안 인간에 대해, 그리고 호기심에 대해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반동의 바람이 전해준 추억

유춘강 / 소설가, 카피라이터

바람이 그맘때면 이상해졌다. 그 바람엔 마음을 가르고 스며드는 이상한 기운이 있었다.

할머니는 서둘러 솔잎을 따오시고, 늘 들고 다니시는 광주리에 풋콩을 한 가득 따서 이고 사립문을 밀고 들어오셨다.

오후엔 할머니와 어머니가 마루 끝에 걸터앉아 풋콩을 까는 동안 나는 그 풋콩의 풀냄새 같은 비릿한 냄새를 맡으며 이상한 바람을 즐긴다.

뽀뽀질한 물에 깨끗이 씻어낸 솔잎은 채반에서 말라간다. 바늘 같은 잎 끝에 대롱대롱 매달린 물방울이 오후의 햇살 아래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서초동에 살던 유년의 한 때가 잘 만든 단편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친다. 수수로 만든 울타리가 바람에 스치며 내는 사각사각 스스스..... 소리, 할머니의 싸리빗질 소리. (신기하게도 인도네시아의 빗자루와 싸리로 만든 빗자루는 재질은 달라도 소리와 모양은 얼추 비슷하다.) 잘 쓸린 마당에 그려진 시원한 포물선과 장독대 옆에 새초롬하게 핀 옥잠화까지..... 그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요즘은 그러한 소소한 일상들이 가장 아름답다는 걸 실감한다.

저녁이면 어디선가 숨에서 제복소리를 내는 풀벌레 소리가 들리고, 적당히 부푼 달이 처마 끝에 걸리면

할머니는 직접 담근 막걸리를 내오신다. 이름 하여 요즘 유행하는 생막걸리인 썸인데 나는 그 맛을 정확히 기억한다. 채 열 살도 되기 전에 막걸리의 맛을 알아버린 썸이다.

할머니는 어머니 몰래 옆에 앉은 내게 설탕을 듬뿍 친 술찌게미를 건네신다. 운이 좋으면 설탕을 듬뿍 넣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휘휘 저은 다음 내게도 막걸리 한잔을 주셨다. 그러면 나는 단 막걸리에 취해서 알뜰뜰한 상태로 졸곤 했다. 아련하게 들리는 풀벌레소리를 자잠가 삼아서. 내 이마를 스친 게 바람이었는지, 아니면 할머니의 손이었는지 기억이 알뜰뜰한 건 아마도 그 막걸리 탓일 게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이 가능 했던 것은 추석 전날 바람이 부린 마법 같은 것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어린 손녀에게 설탕 탄 막걸리를 먹인 할머니도, 곁에 앉아서 훌쩍 한 사발을 다 마셔버린 손녀도, 풋콩을 넣은 송편을 빚으면서 모른 척했던 어머니도.

그런데 얼마 전 나는 그 바람을 나는 반동에서 만났다. 잊고 있던 기억들이 그 청량한 바람 때문에 일시에 되살아났다. 누워 있던 풀잎들이 바람 때문에 다시 한 쪽으로 들고 일어나듯이 추석전날의 설레임과 콩콩거리는 심장의 느낌,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날 것 같은 추석전날의 기억들이.

반동으로 향할 때 일정한 방향으로 기울어진 고무나무나, 늘 사람들이 말했던 한밤에 야외에서 하는 온천은 이미 들어서 알고는 갔지만 그 바람에 반동에 있을 줄은 모르고 갔다. 화산에서 삶아 먹는 계란이 괜찮다고들 하기에 기어이 계란 한판을 위해 슬리퍼를 끌고 분화구로 내려갔지만 머리 속은 삶은 계란 한판을

위해 이리 멀리가야 하나? 그런 생각이 비오는 날 자동차 와이퍼처럼 오락가락 했었다. 한편으론 자연 앞에서 그런 생각을 서슴없이 하는 걸 보면 이젠 내 안의 낭만이 바다를 쳤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했다. 푹 푹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최후까지 낭만의 흔적은 남겨 뒀어하는 것이 글을 쓰는 사람의 의무인데. 그런 와중에 나는 반동의 바람을 만났다.

고갈되던 나의 서정성과 낭만주의를 되살린 건 반동에 불던 바람이었다. 별이 뜨고, 달이 뜨더니 이내 야자수 사이로 ‘스스스’ 불던 바람은 나의 오랜 기억, 잊혀졌지만 지워지지 않는 기억을 기가 막히게 되살려냈다. 어느 복원사가 그렇게 기가 막히게 복원해낼 수 있을까. 추석전날의 풍경을.

자카르타와는 다른 그 바람은 한국의 초가을 바람과 너무나 닮았다. 게다가 하늘엔 달까지 떴으니 제대로 만들어진 그림이었다. 누구나 설레는 추석전날에 불던

바람과 너무 닮은 반동의 바람 때문에 잠시 우리 가족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야말로 시한수가 절로였다. 이태백이가이맛에 시를 썼을 까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밤이었다. 모두들 ‘이거 그 바람 같은데?’ 라고 말하며 마주봤다. 뒷말은 붙이지 않아도 무엇인지 다 알고 있는 바람이었다.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야자수가 감나무가 아니고, 별자리가 그 별자리가 아니란 점이지만. 우린 100% 가을바람을 체험했다. 막걸리 대신 콜라를, 대청 마루대신 수영장의 벤치 누워서 혹은 온천에 들어앉아서 감나무가 아닌 야자수 사이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살짝 즐겼지만 말이다.

달빛이 고요히 떨어지는 대청마루에 앉아서 가을바람에 닷일 스치는 소리를 들으며 따뜻한 정종 한잔을 살짝 한다면..... 잠깐이지만 반동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다. 다정도 병이라더니 그리움도 병인가 보다. 아주 달콤한 병 말이다.

# 한인뉴스 정기구독자 모집합니다.



한인뉴스는 보다 많은 교민들에게 정기적으로 한인사회의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정기구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정기구독 신청 방법

하기 한인뉴스 계좌번호에 정기구독료를 납부하시고

1. 성명(한글 / 영문)
2. 주소
3. 연락처(회사나 자택 / 핸드폰 번호)
4. 구독료 납부 영수증을

팩스 : 021-526-8444 나 이메일 : haninnews@naver.com  
로 보내주시면 정기구독 신청확인서와 함께 1년간 한인뉴스를 발송해 드립니다.

### 정기 구독료 (1부/1년)

- JABOTABEK : 30만 루피아/년
- 기타 지방 : 40만 루피아/년

### 계좌번호

- A/C No : Bank Woori Indonesia  
DDA-913-014112 (Rp 계좌)
- Name : HANINEWS Fax : (021) 526-8444



## 원더걸스에 인니 팬들 ‘원더풀~’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그룹 ‘원더걸스’의 인도네시아 공연에 수많은 현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6월 20일 자카르타에 위치한 발라이 까르띠니 공연장에서 열린 원더걸스의 미니 콘서트장엔 1만여명이 넘는 팬들이 관람해 그들의 인기를 실감했다.

인도네시아 여성그룹 ‘She’와 남성 싱어 ‘Vidi Al-diano’의 오프닝 공연으로 조금씩 달아오른 열기 위에

원더걸스가 무대 위에 나타나자 공연장은 원더걸스를 외치는 함성으로 떠나갈듯했다.

원더걸스는 ‘So hot’과 ‘Nobody’등 유명 곡과 더불어 새로운 앨범(2 Difference Tears)에 수록된 곡들을 불렀다. 쇼케이스 형식으로 다섯곡을 선보인 원더걸스는 뛰어난 춤 실력과 가창력 그리고 관객들과 하나로 호흡하는 능력까지 겸비해 공연을 주도하면서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다. 관객들은 원더걸스의 공연 모습을 카메라와 비디오에 담느라 공연내내 분주했다.

원더걸스의 첫 인도네시아 방문이기도 한 이번 미니 콘서트는 원더걸스가 소니에릭슨사의 “아시아태평양 디지털 브랜드 대사”로 임명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소니에릭슨사는 “원더걸스가 ‘Nobody’로 아시아 가수로서는 드물게 미국 빌보드 차트 100위안에 진입하고 수천만의 네티즌들이 ‘유튜브’를 통해 원더걸스의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와 딱 맞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 미원 인도네시아, 다문화가정 지원 시동걸었다.

지난 6월 18일 대상그룹의 인니 지사 미원인도네시아(법인장 김두련) 사옥에서 현지 생활보호대상자 및 한인다문화가정에 대한 조직적 지원에 나섰다.

미원인도네시아를 비롯 롯데마트, 우리은행, 대사관, 무궁화유통에서 현물 및 금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금번 프로그램은 사랑의전화 운동본부가 파악하고 있는 한인가정 소외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생필품을 전달하고 사랑의 온정을 나누게 된다.

지난해 있는 모기업인 대상(주)가 대한민국 사회복지의 날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는 미원인도네시아는 연간 1억루피아 상당의 현물을 기부하게 되고 뜻있는

사업자들로부터 기부품을 직접 인수받아 매월 1회 다문화가정 80세대(약 200명)를 위한 배송업무까지 수행하게 된다.

김두련 법인장은 "한인사회의 규모가 커져감에 따라 상대적으로 한인소외계층 또한 커져가고 있음을 파악했다"면서 지금까지 현지인 대상의 사회활동에 더해 '소외된 한인들을 위한 활동'을 펼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법인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인다문화가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나눔실천운동에 한인사회가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랐다.

미원인도네시아는 기부문화가 부족한 인도네시아에서 사회공헌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전국 20개여 지역 현지 빈민층 지원과 재난재해 구호활동 등을 꾸준히 전개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왔다.



행사에 참석한 이들이 생필품을 실은 첫 차량이 출발하자 기뻐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좌측부터 서영울(PT. Pertama Abadi 대표이사/동서증권 1대주주), 권용원 키움증권 대표이사, 최대호 동서증권 사장

## 동서증권, ‘키움증권’ 과 합작통해 우수 증권사로 거듭날 것

동서증권은 5년 연속 한국주식시장 점유율 1위 증권사인 키움증권이 대주주로 참여하는 합작을 위한 매매조인식을 어제(9일) 자카르타 그랜멜리아 호텔에서 거행하고 한국에서 입증된 키움증권의 뛰어난 온라인 트레이딩 관련 기술력과 영업노하우를 접목시켜 우수한 증권사로 거듭날 것임을 밝혔다.

조인식에서 현재 동서증권의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서영울 씨(PT. Pratama Abadi 대표이사)는 “양사의 합작 이후 동서증권의 발전 확신한다”며 합작과정 중 동서증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키움증권 측에 전했다.

키움증권의 권용원 대표이사는 “아세안 대표국가로 매년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시장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수년 전부터 동서증권과의 합작계약을 준비해왔다.”며 해외 첫 진출인 동서증권과의 합작의 의미를 설명했다. 2000년 1월 설립된 키움증권은 100% 온라인 종합증권사라는 독특한 비즈

니스 모델로 5년 연속 한국주식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해 오고 있다.

동서증권 최대호 사장은 동서증권을 믿고 귀한 자산을 맡긴 교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이번 합작을 통해 자금력을 더욱 키우고 시스템을 선진화하여 현지 및 한국 주식투자자들에게 보다 높은 양질의 투자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한국 내 기관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 내 다양한 프로젝트에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영업역량을 키워 우수한 증권사로 거듭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조인식에는 양 증권사 관계자 외 대사관 오송공사, 한인회 신기업 수석 부회장, BAPEPAM 前 아구스 무하마드 국장 등이 참석해 양사의 합작계약을 축하했다.



하나은행-OCBC NISP 전략적 업무협약식. 좌측 세 번째부터, Parwati Surjaudaja OCBC CEO, 최창식 하나은행장, Pramukti Surjaudaja OCBC 회장, 박성호 하나은행이사

## 하나은행 - OCBC NISP 전략적 업무협약 맺어

- 원거리 지역 교민들 위한 OCBC NISP 거래 가능, 신용카드 출시도 고려

인도네시아 하나은행이 현지의 대형 은행인 OCBC NISP 은행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양 은행은 앞으로 ▲은행 자금 및 외환업무 협력: 자금 조달 및 운용 등 상호 협력 강화 및 수출입 등 외환업무 협력 강화 ▲한국-인도네시아 간 신규 투자 고객 연계를 통한 corporate banking 쪽의 영업기회 창출 ▲한-인간간 외화송금 및 신용카드 등, 신규 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체결식은 지난 6월 21일 자카르타 꾸닝안에 위치한 OCBC NISP 본사빌딩에서 개최되었다.

OCBC NISP 브라목띠 회장은 ‘협력 서명에만 그치지 않고 하나은행과 좋은 관계와 결과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전했다. 대형 로컬은행인 OCBC NISP 은행은, 377개의 지점망을 보유하고 있는 싱가포르 OCBC그룹 계열의 은행으로, 1941년 설립된 인도네시아에서 4번째로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최창식 하나은행장은 ‘Union is Strength’라며 오랜 역사를 지닌 OCBC NISP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확신했고 향후 370여 개의 OCBC NISP 은행의 지점망과 550여개의 지점 ATM 망을 활용해 원거리 지역에서 사업하는 교민들이 근처의 OCBC NISP를 통해 거래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한국 교민을 위한 신용카드 출시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하나은행은 지난 2007년 진출 후, 현재 수라바야, 반둥을 포함한 19개의 지점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09년까지 218%의 연평균자산성장율을 (CAGR)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편 오는 8월 Wolter Monginsidi 에 20호 지점을 개설하여, 교민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개막 공연으로 무대에 오른 '김재덕 프로젝트'의 리더인 김재덕씨가 주최측으로부터 감사 꽃다발을 받고 있다.

공연 다음날 김재덕 씨는 IKJ 학생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었다.



## ‘인도네시아 댄스 페스티벌’ 10회째 개최

- 소통 강조 '김재덕 프로젝트, 관객 호응 최고

1992년 이후 2년 마다 인도네시아 및 수준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겸비한 타국 공연팀들을 초청해 무용분야의 교류협력기반을 다지고 있는 인도네시아댄스페스티벌(이하 IDF)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IDF 지난 6월 14일 밤 자카르타 소재 따만 이스마일 마르주끼 공연장에서 그 막이 올라 인도네시아, 한국, 대만, 일본, 독일, 남아공 등 총 6개국이 참가해 각국의 문화에 기반한 실험성 있는 작품을 선보였다.

개막일에 마리아 다르마닝시 IDF 운영위원장은 “18년을 이어오고 있는 IDF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IDF가 분명히 인니 예술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고 전하며 개막을 선포했고 개막식에 참석한 파우지보워 자카르타주시사 및 문화관광부 국장, 각국대사 및 약 1000여명의 관객들은 ‘Powering the Future’라는 테마로 올해 10회째를 맞게 되는 IDF를 축하했다.

한국대표로 참석한 11명의 무용수들로 구성된 ‘김재덕 프로젝트’(리더 김재덕)는 ‘Darkness Poomba’라는

제목의 개막공연으로 관객들의 각별한 환대를 받았다. 익살스럽고 부드러운 전통적인 이미지를 폼바들의 이미지를 ‘거만하고 공격적’으로 해석해 표현해낸 이 작품은 단지 무용 안무에만 그치지 않고 전자악기 및 드럼, 판소리를 접목하여 보고 듣는 무용의 형식을 창조해내고, 또한 무대를 뛰쳐나온 무용수들이 관객들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관객들과의 소통을 이끌어냄으로써 관객의 위치를 격상 시킨 점이 큰 점수를 받게 된 이유였다. 공연 다음날 김재덕 프로젝트는 25명의 IKJ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용워크숍을 열어 많은 호응을 받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공연예술의 제1세대며 지난해까지 자카르타예술학교(이하 IKJ) 총장을 역임했던 Kusumo W Sardono는 ‘소통을 강조한 한국작품이 환상적이었다.’며 현재 인니 무용가들에게 부족하고 또한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사해준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하지만 주최측의 홍보 미숙으로 인해 한국 교민들의 관람이 거의 전무했다는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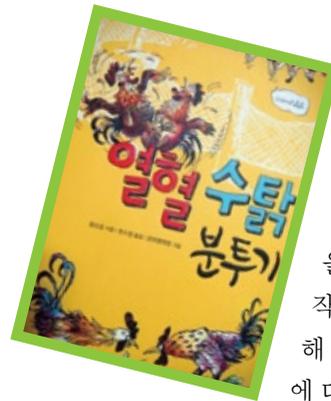
## JIKS, 독서 감상문 발표 대회 개최

“책 읽고 난 뒤,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바꿔서 읽어도 보고……. 책 읽기도 재미있네요.”

지난 5월과 6월에 걸쳐 독서 감상문 쓰기 대회 및 독서 발표 대회가 열렸다. 독서 능력을 중시하는 전호신 교장 선생님의 배려와 롯데장학재단의 지속적인 기증으로 3만 3천권에 이르는 도서관의 장서들을 학생들이 더 많이 읽게 하기 위해 치러진 행사로, 독서 감상문을 쓰는 활동과, 독서 내용을 발표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책’과 ‘책 읽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작가에게 혹은 등장 인물에게 편지를 써 보고, 책의 내용과 느낌을 정리해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친구들에게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소통하는 책읽기’로서의 기회를 가졌다.

특히 이번 독서 발표회에는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말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평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기회가 많이 없었던 아이들이 JIKS의 선진화된 수업 기자재를 통해 효율적으로 발표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책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을 발췌하고, 사진도 실고, 작가를 소개하는 과정을 통해 발표를 듣는 학생들도 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7학년 서현지 학생이 발표했던 ‘색깔 전쟁’이라는 책이, 독서 발표회 이후 도서관에서 인기 대출도서의 목록에 올랐으며, 7학년 추창욱 학생이 발표한 ‘열혈수탑분투기’역시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모으는 인기 도서가 되었다.

이번 독서 발표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7학년 추창욱, 8학년 송정은, 9학년 박진수 학생은 “책을 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독서 감상문을 쓰고, 또 이를 바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보니까, 이 책을 정말, 제대로 소화해 낸 것 같아요. 그리고 상까지 받았으니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책을 읽고 친구들에게 소개해주려고 해요.”라며 독서 감상문 쓰기 대회 및 발표 대회에 참가한 소감을 밝혔다.

독서 교육을 중요시하시는 전호신 교장 선생님의 배려와 롯데장학재단의 지속적인 기증으로 현재 책마루 도서관의 장서는 3만3천권에 이르게 되었다.



## JIKS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들과 특별한 만남 가져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학생 약 20여명이 지난 6월 26일 찌뜨라라야 지역 다문화가정 학생들과의 특별한 만남을 갖고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학생들은 율동과 노래를 통한 간단한 한국어 공부와 즐거운 놀이, 준비해온 피자를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학생들은 지난 6월 1일부터 이틀 동안 교내에서 연 ‘단비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학습도구와 책, DVD 등 교육에 필요한 물품들을 선물로 준비했다.



## 불우이웃 돕기 ‘단비 바자회’ 열려

6월 1일부터 2일까지 중학교 건물 앞에서 작지만 따뜻한 바자회가 열렸다. 중학교 학생회 주최 단비 바자회, 즉 ‘단 하나의 비밀’이란 이름으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바자회를 열었다. 맹별인데도 점심시간만 되면 바자회로 달려가는 학생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이것저것 팔기위해 땀 흘리는 학생들과 학부모님이 계셨다. 바자회에선 여러 가지 물품들을 팔았다. 음식, 옷, 책등 직접 학생, 학부모, 교사들로부터 물품을 기증 받은 것들을 진열해 놓고 있었다. 단연 그 중 음식이 인기가 가장 많았다. 학부모님들께서 직접 준비하신 김밥, 샌드위치, 떡볶이, 핫도그, 쿠키 등 여러 가지 음식들은 역시나 따뜻한 사랑과 정성으로 만들어서인지 더욱 맛있었다.

김이숙 학부모 대표는 “바자회를 통해 공부로 인해 힘들어 하던 아이들이 활기를 찾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뿌듯하고 힘든 것도 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학생회 임원 이진환(8학년)군은 “더워서 힘들고 피곤하였지만 자신들의 작은 노력이 불우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뿌듯하다. 다음에는 보다 나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다양한 물건과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으면 한다.”며 바자회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학부모님들과 학생회 임원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공부하느라 바쁜 학생들과 가르치시느라 바쁜 선생님들, 심지어는 우리학교에서 일하고 계시는 현지 직원들도 모두 즐겁게 바자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 우리가 흔히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들을 한층 더 싸게, 또한 보람 있

게 살 수 있어서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뿌듯하고 행복한 바자회였다.

중등부 학생회에서는 단비 바자회의 수익금 8,550,500 루피아를 직접 불우이웃들을 찾아가 모인 성금을 전달하고, 다시 또 좋은 기회를 통해 몸소 봉사를 실천할 계획도 세웠다. 앞으로 있을 봉사활동에도 학생 모두가 참여하여 나눔의 기쁨을 느꼈으면 한다.

## 서울대,고려대 입시 설명회 개최



지난 6월 5일(토), 25일(금)에 자카르타 한국 국제 학교 대강당에서 고려대와 서울대의 입시 설명회가 각각 개최되었다. 먼저 6월 5일(토)에 고려대학교 입시 설명



비눗방울 만들기에서 1위를 차지한 9학년 지예은 학생

## 수업시간 배운 과학원리 응용 과학경진대회 개최

지난 5월 27일(목) 과학경진대회가 개최되었다. 7학년은 페트병 자동차 만들기, 8학년은 물로켓 쏘아 올리기, 9학년은 비눗방울 만들기, 10학년은 계란 안전 낙하, 11학년은 글라이더 날이기의 종목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동안 치러진 예선전을 통과한 학생들이 본선에서 기량을 발휘하였다. 7학년은 페트병에 바퀴를 달고 모터를 연결해 만든 자동차로 경주해 순위를 가렸고, 8학년 물로켓은 멀리 날아가는 물로켓이 1위를 차지하고, 9학년은 가장 크고 오래가는 비눗방울을 만든 팀이 우승하였다. 최우수를 차지한 학생은 7학년 추창욱, 박종우 8학년 최성미, 김아영, 9학년 김지연, 지예은, 10학년 한정호, 11학년은 구본형, 이홍준 학생이다. 수업시간에 배운 과학적인 원리를 직접 응용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기

회가 흔치 않은데, 이번 행사를 통해 여러 가지 과학적인 원리를 몸소 깨달을 수 있었다. 7학년은 동력기관을 만들어서 움직이게 하는 기회를, 8학년은 작용·반작용 원리를, 9학년은 표면 장력을, 10학년은 충격량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11학년은 양력과 항력을 이용해 비행기가 뜨는 원리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과학경진대회에 참여했던 지예은 학생은 “과학시간에 배웠던 표면 장력이라는 어려웠던 개념을 이번 기회를 통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렵다고 생각했던 과학이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원리를 터득해가니 과학이 훨씬 친근하게 느껴져서 기말고사도 더 잘 칠 수 있을 것 같아요.”라며 밝게 웃으며 말했다.

회가 진행되었는데, 고려대 서태열 입학처장님, 이정석 입학관리팀장, 이정훈 입시 담당자께서 고려대학교의 재외국민특별전형 및 WORLD KU 전형을 위한 대학 소개, 전형 요소, 입시 일정 등을 설명하여 직소 교사의 입시 지도 계획 수립 및 진학 지도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고, 고려대학교를 지원하려는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입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였다. 11학년과 12학년 재학생 뿐 아니라 고려대학교 입시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님까지 약 200여 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 속에서 입시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12학년 고재명 학생은 “실력과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의 명문 사립대학인 고려대에 진학하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입시에 대한 확실한 전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라며 이번 입시 설명회 참여에 대한 뜻을 밝혔다.

또한, 6월 25일(금)에는 서울대학교의 입시 설명회

가 열렸으며, 2011학년도 서울대학교 전 교육과정 이수자 특별 전형 및 수시2 특기자전형을 위해 대학 소개, 전형 요소, 입시 일정 등을 파악하여 학생들이 서울대 진학에 필요한 입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이번 입시 설명회를 위해서 유영철 입학관리과 교육행정 사무관, 권용수 서울대 전교육과정 이수자 특별전형 담당자, 이성환 전문위원께서 JIKS를 방문하였다. 또한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와의 질의 응답시간을 가져, 올해의 입시 전략을 세워 훌륭한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 뿐 아니라 학부모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자리 가 되었다. 12학년 김수영 학생은 “중요한 정보를 누가 먼저 아느냐가 대학 입시의 관건이 되고 있는 요즘, 자카르타 한국 국제 학교의 입시 설명회 개최가 대학 입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라며 입시 설명회 참여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행복한 아이 만들기  
프 · 로 ·젝 · 트

글:이전순

## 행복한 아이의 비밀 7

### 가족의 형태-아빠, 누가 아버지?

‘가족’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나이 든 세대라면 30~40명 정도가 (고모들, 삼촌들, 사촌에 조카에 팔촌까지) 북적거리던 모습을 떠올릴 겁니다. 친척들이 대부분 한 동네에 살았고 매주 일요일 저녁을 같이 먹는다는 명절이니 제사니 해서 자주 모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가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가 발명된 이후 우리는 빨빨이 흩어져 살기 시작했으며 진짜 가족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 아이 둘과 강아지 한 마리’의 가족은 ‘가족’의 한 조각에 불과할 뿐이고, 이런 핵가족화는 갖가지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데 이 모습마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에는 편부나 편모 가정, 의붓아버지나 의붓어머니 혹은 의붓형제와 함께 사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부모없이 할머니와 함께 사는 아이들 즉 조손가정도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의 공부와 외국어 실력을 위해 엄마와 아이들은 외국에서 생활하고 아빠는 한국에서 모든 비용을 벌어서 보내는 아빠들, 또는 거꾸로 아빠가 외국에서 돈을 벌어서 한국으로 보내면 엄마와 아이들이 생활하고 공부를 하지요. 소위 ‘기러기 아빠’입니다. 또 다른 변화로서는 한국 농촌으로 시집오는 외국인 신부가 많아지고 국제적인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제 결혼하는 부부들도 많아져, 다문화 가정도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모습에서 확연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로는 가족의 형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과, 가정이란 곳을 좀더 바람직하고 좋은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형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중요시되는 문제는 가정의 수입 정도입니다. 생활수준이 기준에 못 미치면 어느 누구도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활수준이 기준보다 높아지면 물질보다는 인간관계가 더 절실히 집니다. 건강한 가족생활을 위해서는 교육문제, 지역사회의 발전, 소속감과 참여의식, 더불어 같이 사는 협동정신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부각됩니다. 이 필요조건들을 비용으로 본다면 아주 싸게 먹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부모나 양육자가 꾸준히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이 필요조건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아이들을 참여시키고 양육자들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촌락이나 조그만 마을에서 가족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현대적인 도시가 생겨나기 전까지는 친척들과 한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비교적 분명하고 일정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었습니다. 부모로서는 아주 유리한 점이었습니다. 즉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없다면 다른 누군가가 대신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 아니었으며 충고와 도움, 참고할 본보기가 얼마든지 있었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갖고 아이를 갖기 전에 조카들이나 어린 동생을 돌보며 육아를 연습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도 외로울 염려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많은 제한과 의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므로 설령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해도 다시 그런 대가족에 낄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절엔 오늘날의 부모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만 가져올 수는 없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그 방법을 알아볼까요?

## 꼭 가족끼리만 돕는 것은 아니다 -마음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진심으로 믿고 의논할 수 있는, 혹은 '가족'이니까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아예 찾아볼 수도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이든 분들 중에는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양친 조부모'를 근처로 모셔올 수 없다면 할아버지 할머니 노릇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모임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그룹 같은 데 가면 아이들끼리 함께 노는 가운데 부모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하는 강좌도 사람들을 만나기에 좋은 장소이며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학교, 유치원, 소아과 병원, 환경보호 모임, 체육관, 교회 - 그 어느 곳이든 여러분에게 적당한 곳을 고르면 됩니다.

그러나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뿐더러 이사를 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 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대가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때때로 가족 내에서 끼리끼리 편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자연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가족관계가 그렇게 굳어져버리면 좋지 않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할 만큼 가족관계에 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가정을 통해 우리가 알아낸 사실은 부부간의 애정과 친밀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깊은 애정과 관심이 있는 부부의 자녀들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부들은 자녀들이 끼어들려고 해도(아이들은 끼어들려고 합니다) 쉽게 끼어들기 어려울 정도로 가까운 사이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성교육은 엄마가 부엌에서 일하는 동안 아빠가 지나가며 슬쩍 엉덩이를 꼬집고 그래서 엄마가 기분좋아하는 걸 보게 하는 것이다'라는 발언을 해서 유명해진 어느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 외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해결된다는 겁니다.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분들을 위해 그 반대로 엄마가 아빠를 살짝 꼬집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부부로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자기들이 끼어들 수 없다는 것에 안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면, 즉 배우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도 아이가 찾는 소리가 나면 얼른 달려가는 편이라면 스타일을 바꾸는 게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엄마가 아이를 야단치고 있는데 아빠가 자주 아이를 편드는 경우
- \* 배우자를 대신해서, 혹은 배우자보다 더 아이에게 애정과 지지를 구하는 경우
- \* 아이가 부모의 역할을 하도록 자주 강요받을 때, 예를 들면 동생들을 돌본다든지 부모만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을 분담해야 하는 경우 등

모든 사람은 다 다르고, 언제나 정확한 충고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원칙들을 알려드릴 뿐입니다. 이 원칙들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올바르게 적용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없는 가족의 경우 아이들은 혼자된 엄마나 아빠가 주변의 누군가와 아주 가깝고 애정이 깃들인 인간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더 행복해합니다. 그 사람이 생모나 생부이든 이성친구이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엄마 혹은 아빠가 최소한 한 사람 정도의 특별한 '다른' 어른으로부터 행복하게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에게 갈등이 생기면 무척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더 괴롭게 여기는 것은 부모의 결혼이 깨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사 결과에 명확하게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면 카운슬링이나 다른 도움을 찾아 해결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결혼에도 흥터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배우자가 폭력적이거나 마약과 도박에 빠져있지 않다면, 알코올 중독이거나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한다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면 상황을 개선할 여지는 많 습니다. 물론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 당신이 혼자된 엄마라면?

혼자 부모 노릇을 한다는 것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아이 양육문제를 놓고 서로 생각이 달라 배우자와 갈등할 필요가 없다는 것 등입니다. 혼자된 엄마들은 종종 생활이 훨씬 편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이를 훈계해야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가끔은 강인함과 끈기를 가지고 상대해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특히 남자 아이들의 경우 일정 연령이 되면 홀어머니가 지도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어떤 아이들은 강한 자극을 주는 갈등을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참기 힘들 정도로 고집을 부리고 반항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간



단히 말해서 실제 싸움을 원하는 듯 보여서 싸우게 내버려두면 안정을 찾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아빠가 있으면 훨씬 쉬워집니다.

아빠 역할과 엄마 역할은 성격이 전혀 다르며 아이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서는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만약 엄마가 아빠 노릇을 할 수 있다면 아빠도 엄마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남녀평등 시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여자와 남자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물론 생물학적인 예외는 있지요.) 굳이 차이점을 찾자면 남자는 본성적으로 아이들에게 엄격하게 대하는 걸 별로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혼자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의 호전적인 기질은 이런 일에 적극적인 데 반해 어머니들은 이 기질을 애초부터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홀 어머니들은 강인함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여성 특유의 자애심과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능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겠지요.

혼자된 많은 부모들의 말에 따르면 일단 이 방법을 습득하고 나면 점차 요령이 생겨 감당하기가 쉬워진다고 합니다. 그들은 '기어를 바꾸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이 돌보는 것을 도와주는 까까들

이 있어서 비교적 한국보다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는 하지만, 모든 육아를 다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언어나 습관들이는 문제, 혹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어려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아내가 같이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고 생활리듬도 서로 맞았습니다. 요즈음은 일하는 템포가 과거와 다르고 근무시간대도 다양해져서 맞벌이 부부가 귀가하면 정신없이 휘몰아쳐야만 되는 실정이지요. 그리고 꼭 맞벌이 부부가 아니더라도 요즈음은 부부 각자의 생활이 많이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많은 부부가 저녁 내내 티격태격하며 식사를 하고 아이를 돌보다가 밤이 깊어서야 마음이 합쳐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그럴 마음이나 힘이 남아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만 말입니다.

그러므로 한정된 시간 내에 가능한 한 빠르게 마음을 합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아직 부부로 있다면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십시오.

여기 부부생활을 성공으로 이끄는 10분의 지혜를 소개합니다.

1. 만나기! - 부부가 각자 집에 도착하면 일단 몇 분 동안이라도 함께 앉습니다. 앉아 있는 동안에는.....
2. 먹기! - 간편하고 영양가 있는 간식을 조금 먹습니다. 견과류, 치즈, 과일, 케이크 등 허기진 배를 채워 주면서 곧바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간식을 먹습니다. 다음에는.....



이 전 순

이전순 씨는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와 대학원을 졸업(아동상담 전공)하고 동 대학원과 청주대학교에서 음악치료학과와 음악치료전문가 과정 등을 수료하고 아동 및 정신지체자, 노인등의 심리치료 및 상담 전문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3. 아이들은 잠깐 옆으로! - 아이들은 언제 어디서든 옆에 있으면 항상 신경 쓰이게 하는 존재이므로 이 시간만큼은 다른 방에 있게 하거나 같은 방에 있더라도 잠시 신경을 끊습니다. 단 10분만이라도 부부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이들 차례는 금방 돌아옵니다.

4. 마시기! - 간식과 함께 마시는 따뜻한 커피나 티, 오렌지 주스나 와인 한 잔, 맥주 한 잔은 낮 동안에 쌓인 긴장을 풀어줍니다. 지금부터는 마음 폭 놓고 느슨해질 수 있는 시간임을 온몸으로 느끼십시오.

5. 이야기하기 - 만약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일단 좋은 쪽의 이야기를 하도록 명심하십시오. '오늘 누가 더 나쁜 하루를 보냈는지 알아볼까?' 같은 부부간의 해묵은 경쟁심을 드러내는 화제는 전적으로 피하십시오. 긍정적인 얘기를 나누거나 차라리 아무 말 없이 이 시간을 음미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나면 곧 저녁시간에 해야 되는 일들을 처리할 만큼 마음이 안정될 것입니다. 허기를 가라앉혔으므로 가벼운 마음으로 편하게 요리를 할 수도 있고, 하루 종일 집 밖에 있었으므로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전체 리듬, 심지어는 심장박동까지 배우자와 일치되어 있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흐르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지만 날마다 잠깐씩이라도 실천해본다면 그 효과는 무척 크답니다. 결혼생활에 확실한 도움을 줍니다. "지금 당장 해보시라니까요!"

어느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91세였고 아내는 88세였습니다. 판사는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함께 살고도 왜 이혼하려고 하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많은 부부들처럼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오랜 기간 같이 사셨어요?"하고 판사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죽을 때 까지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지요."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남아협의회 인도네시아 지회

주소: Korea Center Building, Jl.Gatot Subroto Kav.58, Jakarta  
전화: 021) 520 6655 / 팩스: 021) 520 3535



6월 9일 청와대 다과회를 마친 후 대통령과 기념촬영 중인 인도네시아 지회 위원들

## 민주평통 창설 29주년 기념 대통령 축하 서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통 창설 2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함의를 이루고, 국민의 안보 의지와 역량을 높이는 데 늘 힘써 주시는 이기택 부의장을 위시한 모든 자문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여러분,

최근 북한의 기습적인 군사도발로 46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대결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더 이상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염원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그 바탕 위에 선 남북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이 가야 할 유일한 길은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진로를 바꾸어 남북 상생과 공영의 길을 택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대화하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민주평통 자문회의의 여러분,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맞은 지금, 국론의 결집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안보는 군사력만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국민의

단합된 의지가 함께 할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단결한다면 현재의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안보의식이 응축되어 미래의 발전 에너지로 승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은 역사의 고비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오늘의 '더 큰 대한민국'을 이루어 왔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우리 국민이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고 통일의 길을 앞당길 것이라 확신합니다.

정부는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국정에 한 치의 소홀함 없이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선진일류국가를 만드는데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민주평통은 출범 이래 국민통합에 매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통일역량을 결집시키는데 온 힘을 다해 왔습니다. '통일안보의식 진단과 국민통합계획'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번 사태를 맞아서도 '국민 한마음 잇기'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위원 여러분의 이 같은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역사의 부름에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여러분의 모습에 마음 든든함을 느낍니다.

다시 한 번 민주평통 창설 29주년을 축하드리며, 평화통일과 선진 일류 국가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6월 4일 대통령 이명박



6월 10일 평택 제2함대사령부에 예인되어 있는 천안함 선체를 견학하며 침몰원인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고 있는 민주평통 위원들

## 해외지역회의 참가 메모

2010년 6월 8일부터 6월 11일까지 3박4일간 서울 광장동에 위치한 웨라톤 워커히 호텔에서 제14기 민주평통 아시아, 유럽, 남미, 아프리카 해외지역회의가 개최되었다. 즉, 이보다 두 달 앞선 4월에 이미 개최된 북미지역을 제외한 전 세계 해외협의회 위원 750여명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서남아협의회 소속의 인도네시아 지회도 총원 24명 중 14명이 참석하여 뽀뽀하게 짜인 평화통일과 안보현안에 대한 강의와 분임토의 일정을 소화하였으며, 마지막 날 새벽부터 저녁시간까지 실시된 안보현장 견학에는 최전방 비무장지대 수색대대 방문과 두 동강 난 천안함 선체가 보관되어 있는 평택 제2함대사령부를 찾아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지를 수박에 없는 여러가지 기술적인 단서를 합동조사위원회 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하게 청취하였다.

이번 해외지역회의의 주요 활동내용을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정리한다.

### 제1일 차(6/8 화요일)

- ◆등록 및 숙실 배정, 오리엔테이션
- ◆정운찬 국무총리 환영만찬

### 제2일 차(6/9 수요일)

- ◆개회식- 이기택 수석부회장
- ◆신임 사무처장 인사, 사무처 현황보고
- ◆특별강좌-박세일/서울대 교수
  - \* 21세기 대한민국의 길, 선진화와 통일
- ◆보고-엄종식/통일부 차관
  - \*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추진과제
- ◆청와대 초청 다과회, 기념촬영, 청와대 영내 관광
- ◆환영 만찬-국제협력단장(KOICA)

### 제3일 차(6/10 목요일)

- ◆보고-심명필/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
  - \* 4대강 살리기 현황보고
- ◆보고-이창용/G20정상회의 기획조정단장
  - \* G20정상회의 개최 준비현황과 과제
- ◆보고-강동석/2012 여수세계박람회 추진위원장
  - \* 추진 현황보고
- ◆보고-천영우/외교통상부 제2차관
  - \*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장래
- ◆특별강좌-남주홍/국제안보대사
  - \* 천안함 사태의 교훈과 과제
- ◆분임토의
  - 제1분임-한반도의 평화통일과 차세대의 역할/일본 동부,중부 협의회
  - 제2분임-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 고취 방안/일본 근기,서부 협의회
  - 제3분임-해외에서 본 천안함 사태와 대응자세/서남아, 동남아 협의회
  - 제4분임-해외에서 본 천안함 사태와 대응자세/호주, 영국, 중국,뉴질랜드 협의회
  - 제5분임-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 고취 방안/브라질, 남미 서부, 중미 카리브 협의회
  - 제6분임-해외에서 본 대한민국의 위상/북부유럽, 남부유럽, 중동,아프리카 협의회
  - 제7분임-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 고취 방안/모스크바, 극동러시아, 중앙아시아 협의회
- ◆결의문 채택

### 4일 차(6/11 금요일) 안보현장 견학

- ◆3개 사단지역으로 나뉘, 최전방 관측소(OP)를 통해 땅굴 현장 및 군사분계선, 북방한계선 지역 조망
- ◆평택 제2함대사령부 내 천안함 선체 견학 및 브리핑 청취

# 토마토

맛있고  
건강  
되찾아주는  
싱그러운  
마늘사



세계 10대 건강식품의 하나요, 노화를 막기 위해 꼭 먹어야하는 음식 4가지 중 하나인 토마토, 토마토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싱싱한 먹거리입니다. 한 입 씹 베어 물면 그 맛이 그대로 여름이 되는... 야채와 과일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도 모자라 우리의 건강까지 챙겨주는 효자식품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흔히 토마토를 구입할 수 있는데 쥬스나 디저트 뿐만 아니라, 각종 음식들의 접시 한켠에 샐러드와 같이 딱 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별한 요리를 하지 않고도 부담 없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토마토는 칼로리가 낮은 데다 크기만큼의 영양까지 골고루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비타민, 칼륨, 칼슘, 철분 등의 모든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 그야말로 "있을 건 다 있구요, 없어야 할 건 없답니다"가 토마토의 영양을 두고 한 말이 아닐 싶습니다.

토마토의 학명은 *Punica granatum* L.입니다. 식물학적 계층구조를 살펴보면 쌍떡잎식물 통화식물목 가지과의 한해살이풀에 속하였습니다.

토마토의 원산지는 남아메리카 서부 고원 지대로, 토마토는 스페인인들에 의해 필리핀에 전해졌고, 필리핀에서 동남아시아로, 다시 아시아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토마토가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700년 무렵인데, 안데스 산맥에서 자라던 야생 토마토가 인디오들의 이동에 따라 중앙아메리카와 멕시코에 전해지면서 일상적인 식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토마토가 토마토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도 아스텍문화권의 고대 멕시코인들인 아스텍인들이 토마토를 ‘토마틀(tomatl)’이라 불렀기 때문이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토마토를 토맛(tomat)이라고 부릅니다.

토마토의 생김새를 살펴보면 크기는 주먹크기와 비슷하거나 살짝 크며 둥근모양입니다. 색깔은 붉으스름하며 덜익은 토마토는 초록빛을 냅니다. 위로는 꼭지가 붙어있으며, 만지면 탱글탱글하게 힘이라도 살짝 주면 바로 터질듯이 유연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껍질 자체는 굉장히 얇으며, 반으로 자르면 가운데 약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 수많은 씨를 포함한 젤리같은 과육이 있으며, 요 부위가 다른 맛있는 바깥쪽 과육보다 맛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면 은은하고 신선한 향이 느껴지며, 한 입 베어 먹으면 저절로 과즙이 뚝뚝 떨어집니다. 씹을수록 과즙이 생기며 사각사각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합니다.

토마토를 한의학적으로 살펴보면 성(性)은 한(寒)하고, 미(味)는 산(酸), 미감(微甘)하며, 귀경으로는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이 됩니다. 한의학적 명칭으로는 번가(番茄)라고 하는데, 진액(津液)을 생기게 해 갈증을 멈춰 주며, 정신을 맑게 하고, 위를 튼튼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입이 마르면서 갈증이 나는데, 식욕이 부진한 데, 심장 혈관 계통 질병, 위장 질병 등에 치료 영양제로 씁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양기(陽氣)가 부족하거나, 심장이 약한 경우에 쇠고기를 토마토와 함께 삶아서 식사 시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라고 기록 돼있습니다. 토마토는 성질이 차며 산(酸)이 다량으로 함유돼 있어 몸이 차거나, 위장이 냉(冷)하고 허약해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서 설사를 자주 하거나 배가 자주 아픈 경우나 위산이 많이 분비되는 경우에는 적게 먹거나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약으로 쓸 때는 생식하거나 생즙을 내서 사용합니다.

어린이들이 간혹 토마토를 설탕과 함께 먹을 경우가 있는데, 비타민의 손실이 많으므로 설탕과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토마토의 차가운 성질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금을 첨가하거나 열을 가한 조리법을 선택해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칼로리가 아주 적습니다. 200g 정도 되는 보통 크기의 토마토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열량은 30kcal 정도인데 밥 한 공기의 열량이 300kcal 이니 토마토 10개를 먹으면 밥 한 공기를 먹는 것과 같아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토마토의 영양성분 및 효능을 살펴보면 토마토에 들어있는 구연산은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는 청량효과가 있어서 목이 마를 때 먹으면 갈증이 해소되고 입맛 없는 여름철에 식욕을 돋구어주며 땀을 흘리면서 손실된 미네랄을 보충해줍니다. 또한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아미노산인 글루타민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장인이나 쉽게 피로를 느끼는 현대인들은 토마토 주스 한 잔으로도 어느 정도 피로회복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신진대사를 도와주는 비타민C, 지방의 분해를 돕는 비타민B군, 엽산, 바이오틴, 나이아신 등

각종 비타민이 들어있습니다. 하루에 토마토 4개만 먹으면 비타민A와 비타민C의 하루 필요량을 채우고도 남을 양이며, 비타민A·비타민C·비타민E와 루틴 등이 함유돼 있어 변비와 고혈압, 심근경색 등의 심장질환, 뇌졸중·고지혈증·골다공증 등의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 밖에 칼슘이나 조혈에 필수적인 철분 등 무기질도 고루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뽀뽀니해도 가장 중요한 성분인 리코펜이 들어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토마토를 즐겨 먹어야 하는 이유 중 첫째로 리코펜을 들만큼 리코펜은 노화방지, 항암, 심혈관질환 예방, 혈당 저하 효과를 나타냅니다.

리코펜 성분이 각종 암을 예방하고 DNA손상을 줄여준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리코펜 성분은 비타민C와 달리 열을 가하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늘어난다고 하니 토마토를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조리해 먹을 경우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매일 아침 공복 시 신선한 토마토를 1~2개씩 2주정도 계속해서 먹으면 서서히 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토마토에는 혈전을 예방하는

작용도 있다고 하니 알면 알수록 영양만점 건강식품인거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토마토는 비옥한 땅에 심어져 햇빛을 듬뿍 받고 자라 제철인 여름에 탄 토마토라고 합니다. 토마토는 오이, 수박, 멜론과 마찬가지로 여름에 수확되는 여름채소이기 때문에 제철인 여름과 초가을에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쨍쨍한 햇빛을 신나게 받고 자라난 토마토는 다른 어느 나라의 토마토보다도 리코펜이 풍부하여 맛과 영양이 더욱더 으뜸이 아닐까 합니다.

솔한의원 원장 김효영

vitavic@naver.com/ 021-7278-7410



글: 허영순 번역작가(KBS WORLD INDONESIA/OKTN)

자료제공: KBS WORLD INDONESIA/KORINDO.

벌써 한해의 절반이 지나가 버리고 7월 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무엇을 했으며 그 무엇으로 내가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돌아 보았습니다.

한국의 7월은 아스팔트위에 아지랑이가 보일 정도로 뜨겁습니다. 때론 바캉스를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대는 해변이 연상 되기도 하고 연이 쏟아지는 비로 발생한 수해민이 생각 나면서 우울해 지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연애인들의 연이은 자살 보도로 듣는이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이며 그 스트레스는 우리 마음이 만들어 내는 거라고 합니다.

같은 7월이라고 해도 경험에 따라 임하는 마음에 따라 바캉스를 떠올리는 사람 또는 수해민을 생각 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7월 되겠죠.

요즘 한국에서 아이유의 “잔소리”라는 노래가 3주 연속 한국 빌보드 차트 1위 라고 합니다. 잔소리는 쓸데없이 자질구레한 말을 늘어 놓거나 필요이상으로 듣기 싫게 꾸짖거나 참견함으로 부정적 의미를 뜻합니다.

“화가 나도 소리쳐도 너의 잔소리마저 난 달콤한데...” 라는 노래 가사 처럼 그 잔소리 마저도 사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더 행복 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스스로의 마음 건강에 대해 돌아보고 주변의 힘든 사람을 눈 여겨 볼 계기를 만들어 보는건 어떨까요?



## Manisnya Hidup. 바람불어 좋은날.

민국은 부모님이 본인의 친 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사사건건 비교 대상이던 형 대한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민국의 행동에 가족들은



Kenapa dia melampiaskan emosi pada kakaknya.

자기 성질난걸 형한테 풀지?

Lampiaskan : 분출하다. 내뿜다/ 풀어주다. 해제하다. 유사단어로는 melempar(주로 물건 따위를 던지다 라고 할때 사용 되지만 예외적으로 질문을 던지다 라고 할때 예) Bapak guru melemparkan pertanyaan kepada Mr Kim / 선생님이 김씨에게 질문을 던지다 와 같이 예외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음)와 melepas(풀어주다) 가 있으나 본 문장과 같이

오히려(잘못 없는)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다. 화난 감정을 푼다는 뜻의 화풀이 하다 라는 뜻으로 어떠한 감정이나 사고(생각)를 내 던 지듯이 남에게 표출 할때 사용 합니다.

## 단어의 구분

*Lampias, lempar, lepas*의 문장에 따른 단어 사용

\**Melampias*: Keluar, Memancar

내보내는, 내뿜는

- Ika *melampiaskan* amarahnya dengan memukul-mukul bantal.

이까는 베개로 때리는 것으로 화풀이를 한다..

- Makan coklat adalah salah satu cara baginya untuk *melampiaskan* emosi.

초콜릿을 먹는것도 화를 푸는 것중에 한 방법 이다.

- *Melampiaskan* dendam itu tidak baik.

복수(내뿜는것)를 하는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 Untuk *melampiaskan* kekesalannya, dia mendengarkan musik dengan kencang.

그는 자신의 잘못을 잊어버리기 위해(풀어버리기 위해) 볼륨 높여(큰소리, 세게) 음악을 듣는다.

\* *Melepaskan* : menjadikan lepas (tidak terikat, keluar dr kurungan, dsb.)

어떤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 지는...풀어진.

Dia *melepaskan* alas kakinya(sepatu kaki) saat masuk ke tempat ibadah itu.

그는 예배당에 들어 갈때 신발을 벗고 들어 간다.

Dia datang kemari untuk *melepaskan* rasa rindunya kepada keluarga kami.

그는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그리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 가족에게 왔다.

\**Melemparkan* : membuang jauh-jauh, melontarkan sesuatu.

어떠한 것을 던지거나 버려 떨어지게 만드는것

Dia *melemparkan* koin itu ke dalam kolam keberuntungan.

그는 행운의 연못에 동전을 던졌다.

Peserta seminar *melemparkan* pertanyaan-pertanyaan yang kritis kepada nara sumber.

세미나 참석자가 연설자에게 비판적인 질문들을 던졌다.

*Serakah, Rakus, Nafsu, Hawa nafsu* 의 문장에 따른 단어 사용

\**Serakah* : selalu hendak memiliki lebih dr yg dimiliki; punya pengertian yang sama dengan Rakus.

자신이 가진것 보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욕심을 나타냄

Loba와 Rakus가 동의어 이나 Loba는 극히 드물게 사용됨.

- Meskipun sudah kaya, dia masih *serakah* juga ingin memiliki harta saudaranya.

그는 이미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형제의 재산을 탐낸다.(욕심)

- Jangan *rakus*! Sisakan makanan itu untuk adikmu.

너무 욕심 내지마! 동생이 먹울건 남겨 뒤야지.

**Tip!** *Rakus*의 경우 개걸스럽게 먹거나탐욕 스텝게 먹는다 라는 문장에서 주로 사용 됩니다.

- Anak itu *rakus* makan seperti pengemis yang sudah lama kelaparan.

그 아이는 오랫동안 굶주린 거지 처럼 개걸스럽게 먹는다.

\**Nafsu* : keinginan (kecenderungan, dorongan) hati yg kuat.

어떠한 것을 간절히 원하는 의지

- Karena baru saja putus dari pacarnya, dia jadi tidak nafsu makan.

애인하고 헤어진지 얼마 안되어 그는 입맛이 없다.

**Tip!** *nafsu makan*은 숙어 처럼 사용되며 입맛이라는 (밥을 먹고 싶은 의지) 뜻을 갖습니다.

\* *Hawa nafsu* : dorongan hati yg kuat untuk berbuat kurang baik.

- Nafsu강한 의지에 Hawa가 붙어 숙어로사용되며 어떠한 부정적인 강한 의지로 열망 욕망 욕체적 욕심(욕욕)을 뜻합니다.

- *Hawa nafsu* yang tidak dapat dikendalikan dapat merusak potensi diri seseorang.

조절되지 않는 욕망은 어떤 사람 스스로를 파괴할 힘(잠재력)을 갖고 있다.



# 컴퓨터 본체

계속 되는 컴퓨터 이야기.. 주변기기 이야기 했으니 오늘은 컴퓨터 본체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난 호에 잠시 언급했지만 컴퓨터의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본체에 대해서 상세히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진공관, 트랜지스터(1세대 컴퓨터)

1940년대 ENIAC 이라는 군사용 컴퓨터가 최초 유도탄 탄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개발된 최초의 컴퓨터입니다. 진공관을 사용하여 개발되었는데 진공관이라는 거 아시죠 옛날 텔레비전을 켜면 부웅 하면서 조금 있다가 들어오는... 그걸로 컴퓨터를 만들었다 합니다. ^^

## 8 비트 컴퓨터

1970년대 말에 시작되었으며 개인용 컴퓨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PERSONAL COMPUTER 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PC 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이 시절 컴퓨터는 미국의 APPLE, 일본의 MSX 로 대표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컴퓨터 라기 보다는 게임기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 16 비트 컴퓨터

80년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86 COMPUTER 라고 해서 그 당시는 XT 또는 AT 컴퓨터라고 불렀지요. 이 시절 IBM이 업계표준을 차지하며 천하 통일을 이룬 사건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컴퓨터들은 호환성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엘지컴퓨터(이때는 금성이라고 했는데)에서는 쓸 수 없는 시대였죠. 이때 IBM이 과감하게 자사 PC의 SPEC을 대외에 공개함으로써 APPLE을 제외한 대부분의 PC 제조사들은 IBM의 표준에 따라 PC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IBM의 표



김신  
IT Engineer  
kmsms007@gmail.com

준이 자리잡은 이후로는 어떤 제작사의 컴퓨터이든 IBM 기종에 맞게 제작된 프로그램이라면 서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지금과 같이 똑 같은 WINDOW7 CD 를 제조사와 관계없이 모든 COMPUTER에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컴퓨터를 IBM 컴퓨터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 32 비트 컴퓨터

1990년대 초 X86 계열의 등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386, 486 COMPUTER 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32비트 COMPUTER의 등장과 더불어 운영체제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는데, 바로 WINDOW가 출시된 것이죠. WINDOW 3.1의 등장과 더불어 본격적인 MULTI TASKING(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능)이 가능해 졌으며, 인터넷 사용을 위한 기반이 다져진 시기입니다.

## 펜티엄 컴퓨터(Pentium Computer)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시작되었으며, 펜티엄 2,3,4 라고 불리며 컴퓨터 성능의 비약적인 발전을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컴퓨터의 변천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한 X86 이니 286, 386, 펜티엄 등은 CPU 라는 장치의 이름입니다. INTEL 이라는 CHIPSET 만드는 회사에서 자사 제품에 붙였던 이름이 그대로 컴퓨터 이름처럼 된 것이지요. 요즘은 DUAL CORE, CORE 2 DUO 등등의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냥 제품 이름이다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 컴퓨터의 본체 구성 요소



### 메인보드(MAINBOARD)

마더보드라고도 하는 이 장비는 컴퓨터의 기본이 되는 장치로 모든 주변 장치들을 사용하기 위한 일종의 마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시스템 가격 중에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이 메인보드의 능력에 따라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추가 장착할 수 있는 있습니다.

### CPU(Central processing unit)

중앙처리 장치라고 하는 이 장비는 사람으로 치면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이며 컴퓨터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위에 컴퓨터 발전사에 보면 Pentium 이니 dual core니 하는 부분이 이 CPU 이름 입니다.

워낙 하는 일이 많은 장비라 엄청난 열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냉각 팬을 설치 사용합니다. CPU 가 고장 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냉각 팬이 고장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냉각 팬이 작동하지 않으면 CPU는 죽은 목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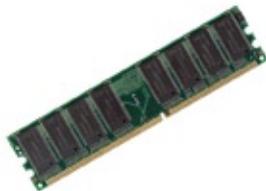
CPU



냉각팬

### MEMORY(RAM)

어느 위치에서든 바로 접근하여 수행한다는 뜻의 이 장비는 다른 어떤 주변 기억장치들(HDD, CD ROM) 보다 빠르게 데이터를 읽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단기 기억능력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즉 컴퓨터가 켜져 있는 동안에만 취득한 정보를 운영하고 컴퓨



터가 꺼지면 모두 잊어버리는 장치입니다.

컴퓨터가 처리하기 위한 모든 데이터를 이 메모리로 읽어 들인 후에 처리하기 때문에 메모리가 크면 클수록 CPU 가 처리하는 일을 많이 도와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컴퓨터 속도도 빨라지겠지요.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 메모리를 거쳐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 HDD(Hard Disk Drive)

하드디스크 라고 하는 장비이며, 사람으로 치면 장기기역능력에 해당합니다. 일종의 창고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창고가 크면 클수록 저장할 수 있는 양이 많겠지요. 여기서 잠깐! 하드 디스크가 정보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언급한 메모리(RAM) 도 도와준다는 사실. 아시나요? 메모리가 업무 수행 중 용량을 초과하기 시작하면 하드디스크에 여유공간을 빌려서 쓴답니다. 물론 두 녀석 간의 속도 차가 있는 관계로 느려지기는 하지만 처리 못한다고 거부하지는 않으니 참 믿음직한 녀석들이긴 합니다. 그러니 가끔 작업량이 많아지면서 컴퓨터 느려진다고 너무 타박하지는 마세요. 나름대로 열심히 돌고들 있으니까요.

요즘은 이 하드디스크 분야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서 보통 300G 이상을 개인용 컴퓨터에 탑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예전에 10M 하드 디스크 장착하고 흥분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 FDD(Floppy disk drive)

디스켓으로부터 정보를 읽어 내거나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하며, 줄여서 플로피 드라이브라고도 부릅니다. 사용할 수 있는 디스켓의 크기에 따라 5.25"와 3.5" 드라이브가 있는데 용량은 디스크 한장당 1.2M 정도 입니다.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잊혀져 가는 장비 입니다. 워낙 메모리 분야가 발전하다 보니 제일 먼저 퇴출된 녀석입니다. 예전에 WINDOW95 깔려고 플로피디스크 40장을 가지고 인스톨하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 CD-ROM/DVD-ROM



CD, CD-RW, DVD, DVD-RW 등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저장장치입니다. 일반 CD 와 DVD 가 있는데 CD 나 DVD 뒤에 붙는 RW 라는 것은 READ와 WRITE 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원래는 읽기만 가능한 것을 WRITE, 즉, 저장도 가능하게 만든 장치입니다. CD 는 대략 700M, DVD 는 CD 의 대략 6배 정도인 4G 정도의 저장 능력이 있습니다.

## VGA CARD



VIDEO ADAPTER 라는 것이 정식 명칭입니다 컴퓨터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모니터에서 필요한 전자신호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장비이며, 대개 자체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화면에 표시되기 전에 이미지를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비디오 카드 메모리도 크면 클수록 더 좋은 화면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 SOUND CARD



사운드 카드는 컴퓨터로 하여금 음향을 조작하고 출력할 수 있게 해주는 확장 카드를 말하는 것으로 거의 모든 사운드 카드가 음악을 전자적으로 표현하는 표준인 MIDI 를 지원하며, 그 외에 대부분의 사운드 카드가 싱가포르 기업인 크리에이티브(Creative)의 SoundBlaster 와 호환성이 있습니다. 컴퓨터 발전사에 언급한 IBM 천하통일처럼 사운드 카드의 천하통일은 싱가포르 기업인 크리에이티브사가 이루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사블이라고 말하거나 블러스터라고 말하는 사운드 카드는 PC 사운드 카드의 실질적인 표준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대표격으

로 말하는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MAIN BOARD에 장착되어 나오는 모델도 많이 있습니다.

## LAN CARD



컴퓨터간 통신을 위한 장비로서 파일 공유, 프린트 공유, 인터넷 사용을 위한 필수 장비입니다. 컴퓨터 뒷면에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은 부분은 보이지 않지만 껍을 꺾을 수 있는 구멍이 있으면 LAN 카드가 장착되어 있는 컴퓨터입니다. 이것 역시 요즘은 MAIN BOARD 에 장착되어 나오는 추세이지요.

이와 같이 컴퓨터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은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주변기기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위에 언급된 장비들만 있으면 컴퓨터를 사용하기에 지장이 없습니다. 길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비약적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요즘 컴퓨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각 구성 요소들의 기능만큼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컴퓨터 해부하기 하면서 잊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나서 때로는 미소 짓고 때로는 힘들었던 과거 생각도 나서 필자에게는 재미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글로 다 표현하자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모쪼록 컴퓨터 때문에 열받지 마시고 인터넷 느리다고 속상해 하지 마시고 잘 달래가면서, 때로는 이해도 좀 하시면서 ^^ 건강한 인니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 인도네시아 한인들의 자선문화

인재 손인식(서예가, 시인)

인도네시아 한국인들의 자선은 찾을수록 산처럼 높고 들판처럼 넓었다. 하지만 그 사실들을 밖으로 들추어내는데 있어 다소 염려도 없지 않다. 자선의 고귀한 뜻을 훼손하는 일일 수도 있고, 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자선의 진리와 배치되는 일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되짚어보면 자선 또한 세상사다. 많고 적음을 떠나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기쁘고 고귀한 일 중의 하나로서, 편하게 접하고 편하게 행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란 생각을 한다. 하여 이쯤해서 인도네시아에서 베풀어지는 한국인의 자선 상황을 중간 정리하면서 그 의미를 새롭게 새겨보고자 한다. 아울러 그동안 마음은 있으나 함께하지 못했던 이웃들도 자선에 동참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자선 현장에서 가장 도드라진 것은 종교 공동체들이었다. 몇 몇 사례들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현지인 이웃을 위한 유치원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밀알학교 운영을 하고, 한센병 환자 마을 돕기에 적극적인 교민교회, 변함없이 전개하는 늘푸른교회의 언청이 수술을 비롯한 몇 몇 자선활동, 연합교회의 현지 어려운 이웃 눈 수술 해주기, 천사의 집 도시락 나눠주기, 장애인에게 제빵기술과 약세사리 제조 기술 전수, 주님의 교회에서 펼치는 밥퍼 사역과 침술을 통한 의료 사역, 그리고 미용 부분의 자선, 열린교회의 성도 한 가정 당 현지인 한 가정 돕기와 미용봉사, 무료 직업훈련학교

운영,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의 나환자촌 돕기와 가깝고 먼 지역을 망라한 장학금 지급, 그리고 어려운 불자돕기, 성요셉 성당의 일선 자선단체 정기 지원과 폭넓은 장학금 지급, 정기기금모금을 위한 작은꽃송이회, 겨자씨회 등 교우모임체 활동, 한마음교회의 노인대학 섬기기, 동부교회의 이웃사랑 등을 들 수 있겠다.

지면의 특성상 모두 나열할 수 없지만, 거의 모든 종교공동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들도 있었다. 현지의 어려운 이웃들을 대상으로 정기, 또는 부정기로 의복이나 일용품을 나누고 크고 작은 장학금을 지급하며 사랑과 희망을 심는 것이 그것이다. 정신적인 안정과 구도자적 삶을 가꾸고, 영혼을 구원코자하는 종교공동체들답게 앞장서서 자선 상황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생활처럼 펼쳐지는 특별한 자선들도 있었다. 바로 한국인 수도자들에 의해 행해지는 자선들이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땀 흘리며 자선을 실천하는 선교사, 수녀, 스님 등 수도자들께서는 밥퍼 봉사, 고아원 운영, 노인을 위한 시설 운영, 저소득층 아이들과 거리의 부랑아 교육, 다문화가정, 미혼모,





미망인 돌보기 등 매우 다양한 자선을 실천하고 있었다. 이들은 재정 자립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예기치 못할 자연재해 현장이 생기면 먼저 달려가고 또 연결 통로가 되기도 하는 이들이야말로 자선현장의 특별한 존재들이 아닐 수 없다. 대표적으로 밥퍼 해피센터의 최원금 선교사, 매단에서 고아원, 공부방 등을 운영하는 박수산나 수녀를 비롯한 세 분의 수녀, 땅그랑 외곽에서 무지개 공부방 운영을 주도하는 고재천 선교사, 또한 인도네시아 각 지방에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사랑을 심고 가꾸는 최달수, 이항용, 정영명 선교사들을 비롯한 인도네시아의 400여 한국인 수도자들이 있다. 성직자, 수도자들의 숭고한 뜻과 실천에, 교민들의 진심어린 격려와 동참이 더해져, 서로를 행복의 세계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단체들의 자선 실체다.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를 주축으로, 업종별 기업협의회, 한국부인회, KOWIN, 국제부인회, 재인니평통, 동부자바 한인회, 반둥 한인회, 족자 한인회 등은 지역과 민족을 초월하여 재해가 발생하면 앞다투어 성금과 물품을 거두어 아픔을 나누며, 또한 나름대로 상황에 따른 최선의 자선을 펼쳐가고 있다. 독자적이고 지속적인 기구로는 우리은행이 주축이 된 우리장학회, 불우한 처지에 이른 한국인을 돕는 사랑의 전화 운동본부, 무지개 공부방을 집중 지원하는 신발협의회, 수디르만 로타리클럽의 정기적으로 실행하는 몇몇 정기자선이 있다.

또 다른 자선의 형태도 있다. 자선공연과 전시로서 <내 맘에 한 노래 있어>의 언청이 수술을 위한 정기 자선음악회, 수달만로터리클럽이 주최했던 성악가 초청 자선음악회, 한인예총에서 주관한 판소리 자선순회공연, 최근에 열렸던 김세영 자선 사진전 등이 그것이다. 문화를 가꾸고 향수하며, 펼치는 자선, 어찌 특별함이 아니겠는가.

자선이란 경제적 여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주지하는 바다. 사랑의 마음과 지극한 실천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자선이다. 또한 마음이 있다고 해도 당장의 현실적인 일들에 밀리기도 하는 것이기에 사회단체나 문화행사를 통한 자선 기회 제공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들의 아름다운 자선 사례 또한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다만 공동체와 함께 하는 다양한 자선 안에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여기서는 그 사례들을 생략하겠다. 꼭 기억해야 할 분들은 기업의 주체들이었다. 이들은 생산과 비즈니스 현장의 주인공들이자, 가장이며 또 사회공동체, 종교공동체의 일원들이며, 경제적 결실을 창출하는 원천이다. 곧 사실상 모든 자선의 출발점이 기업인들인 것이다. 기업 자체로 펼치는 자선 사례도 없지 않는데, 자선재단을 설립하여 심장병 어린이 치료, 한국과 인도네시아 한센촌 지원, 국내외를 막론한 장학금 지원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자선을 펼치는

무궁화유통과, 배움의 농장, 빈민가정 우수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학대받는 여성돕기, 기아구제 식량 지원을 꾸준히 펼치는 CEO 스위트는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돈이 많은 사람을 무조건 존경하지 않고, 권력을 향해 무조건 굽실거리지 않는 것이 한국인의 기질이다. 인정이 많다는 것 역시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인의 기질이다. 인도네시아 자선현장에서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는 마음부자 한국인, 실천의 한국인을 돌아보면 참으로 감사와 경이로움이 아닐 수 없다. 바로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축복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닌 나라에서 더불어 살고 있다. 와룡에 앉아 식사를 하고 오죽을 이끄는 어려운 환경의 사람이 거리에서 손을 내미는 걸인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 자선(慈善), '사랑이 지극'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사랑할 자(慈)를 스스로 자(自)로 바꾸면 자선에서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뜻을 찾을 수도 있다. 곧 진정한 자선, '세상 최고의 자선이란 오늘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 자기의 삶을 잘 살아주는 것'이란 의미도 생기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사 호사다마여서 좋은 일에도 더러 비판이 끼어들기도 한다. 사람마다 느낌과 판단이 다 달라서 고귀한 뜻의 자선활동을 놓고도 긍정의 시각만 있지 않는 것이다. 다만 더러 있을 수 있는 부정적 시각이나, 자선을 앞 세워 개종을 강요하는 일부의 처사, 자선기금을 착취하고자하는 몰지각한 일부 이 나라 인사들을 대함에 있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한편 자선과는 다른 정다운 나눔들도 많았다. 예컨대 인도네시아 한인사회 초기부터 유학생들을 위한 식사초대, 고추장, 된장, 김치 나누어주기와, 사정상 독거를 하는 이웃에 대한 다정한 나눔들 또한 여전하다. 듣고 보는 이의 마음이 흐뭇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행사들에 대한 크고 작은 도움들 또한 아름다운 나눔으로서 문화를 가꾸는 큰 힘이기도 한다.

우리는 지금 매우 풍요한 자원과 여유로운 품성을

가족이나 이웃에게 베푸는 세상 최고의 자선이 아닐까 싶다.

“자선에 지나침이란 없다.”와 “자선은 무엇보다 지속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정의가 있다. 그런가 하면 자선에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선이란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감사와 기쁨”이라고 밝힌다. 자선과 나눔은 분명 사람 사는 사회의 꽃인 것이다.

이상으로 인도네시아의 아름다운 한국인, 사랑의 한국인을 자선이란 창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자선이 필요 없는 세상이라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똥맞은 생각이 든다. 작은 자선마저 필요로 하지 않는 평화롭고 풍요한 세상을 희망해보는 것이다.

# 내가 겪은 6.25.(2)

올해는 한민족끼리 서로 총을 겨누며 동족상잔의 최대 비극을 맞았던 6.25 전쟁이 발발한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지금도 남북한은 지리적으로, 이념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갈라져 휴전이라는 긴장감속에 기약없이 통일을 기다리고 있다. 고향을 잃은 실향민들과 가족과의 조우를 바라며 눈물로 수십년을 지새우고 있는 이산가족들, 최근 천안함 사태로 북한을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6.25는 우리에게 있어 현실이고 진행형이다. 우리 교민들 중에도 6.25를 생생히 기억하는 이들이 있다. 60년이 되는 이날 교민 이승민 씨가 직접 겪었던 6.25를 연재하며 그날의 현실을 다시 기억했으면 한다. -편집자 주-

(전호에서 계속)

<글: 이승민 변호사,변리사>

우리 밭과 논은 다 나눠가진 공산주의자들은 할머니와 어머니가 밭일을 하면 이제는 당신네 것도 아닌데 왜 일을 하느냐고 밀어내면서 말할 수 없는 수모를 줬다. 나는 우리 짚잔등 밭에 빨강게 익은 일렁감을 바라보기만 하고 먹고 싶어도 따먹지를 못했다. 우리 것이라고 맘대로 따먹었다가는 누구에게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 따 먹을 수가 없었다.

인민위원장이 우리 밭의 일부를 우리 집에서 일하던 장석씨에게 나눠주자 마음이 선량한 장석씨는 자기는 차마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가 반동하고 똑 같은 논이라고 비판을 받고 바다가로 끌려가서 코피 터지는 구타를 당했고 나눠준 밭을 형식적으로 받았다.

인민위원회가 우리 전답을 다 뺏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나 우리 전답을 나눠받은 이웃들 중에 양식이 있는 분들은 형식적으로만 받고 할머니와 어머니가 밭에서 일하시는 것을 은연 중에 묵인했다.

우리 가족은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수모를 받으며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하루 하루를 복감자만 삶아 먹고 마당에 깎 명석이나 마루에서 잠을 자며 살았다. 복감자 이외에는 먹을 식량이 없는 우리 가족은 갯것을

찾기 시작했다. 갯빨에서 사는 긴 고동 뼈틀이 잡아다가 삶아 먹었다. 뼈틀이는 너무 작아서 일일이 바늘로 깔 수가 없어서 먼저 뾰족한 끝 부분을 식칼의 등으로 깨고 뺀 후에 다시 대가리 부분을 빨면 몸통이 쪽 빠져 나왔다. 뼈틀이를 많이 먹으면 입이 텅텅해지고 틀림없이 설사가 났다. 설사가 나는 줄 알면서고 우리는 뼈틀이를 잡아다 삶아 배를 채웠고 갯빨에서 사는 색깔이 거무튀튀한 서렁게를 잡아와 삶아 먹었고 작은 꽃게를 잡아다가 게젓을 담가 먹었고 해초 감태를 건어다가 날 것으로 끓여 먹기도 하고 말려서 간장에 무쳐 먹기도 했다. 바위 바닷가에서는 고동을 잡아다가 삶아서 바늘로 까먹었고 바위에 붙어사는 갯굴을 까다가 반찬을 해먹었고 바닷가 얕은 물속에 있는 돌을 제치고 큰 뽕떡게를 잡아다가 삶아 먹었다.

하루는 물이 많이 빠지는 사리 간조에 전마선을 타고 가서 바다 바닥에서 넝쿨식물처럼 자라는 줄기가 긴 해초 자반을 잘라다가 삶아 먹고 온 가족이 심한 설사가 나서 고생을 한 적도 있었다. 나는 허기지면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천지에 널려 있는 잔디 뿌리를 케먹었고 소나무 꺾질을 베끼고 꺾질 안쪽에 붙어 있는 종이같이 얇은 소나무 살을 베껴 먹고 단다꾸(더덕)를 케먹었다. 잔디 뿌리는 색깔이 하얗고 마디가

있고 당분이 많았으며 소나무 속살은 부드럽고 연한 맛이 좋았고 단다꾸는 담백하나 맛이 좋았다. 낮에는 산에 나무를 하러가거나 뉘시질을 다녔다. 갯빨 낙시를 가거나 바위 낙시를 가서 물고기를 낚아와 반찬을 공급했다.

해질 무렵 집에 들어오면 모깃불을 퍼는 것이 나의 주요한 임무였다. 성냥이 귀해서 빨간 부싷돌을 부딪치면 생기는 불에 숨을 갖다 데어 불을 만들고 소나무에서 따온 관솔에 유향을 녹여 발라 쟁고 석유가 없어서 등을 켤 생각도 못했으며 매일 해만 지면 어둠 속에서 살았다. 날씨가 좋은 날은 마당에 멍석을 펴고 잠을 자고 날씨가 궂은 날에는 온 식구가 마루에서 잤다. 비가 오면 밀대로 길게 만든 우장을 처마 밑에 처서 비가 마루로 떨어지지 않게 하고 마루에서 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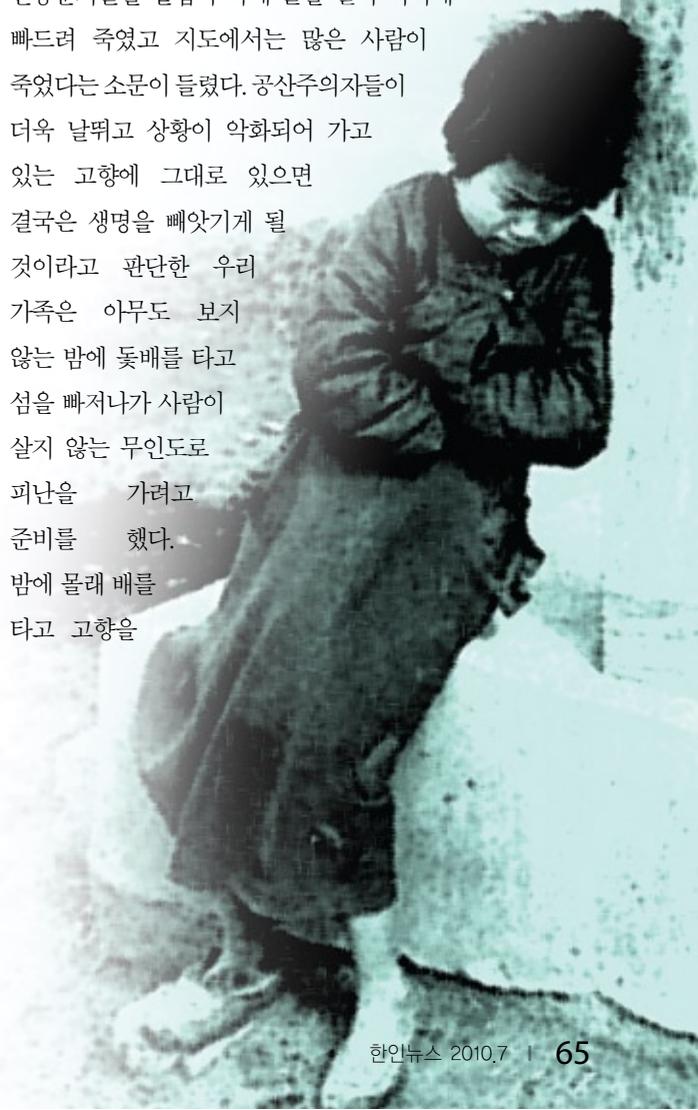
하루 끼니를 북감자나 갯것으로 연명하며 살았지만 나는 북감자를 좋아하고 갯것을 좋아해서 불평하지 않고 잘 먹었다. 특히 어머니가 끌여 주시는 북감자 된장국을 좋아했고 지금도 감자 된장국을 좋아한다. 삶은 북감자와 갯것만 먹고 사는 우리 가족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다. 아랫 집에 살고있는 윤재련씨가 보리 한 가마니를 지게에 지고 한 밤중에 찾아와 보리 가마니를 내려 놓으시고 한 마디 말도 하지 않고 슬그머니 내려 가셨다.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반동분자로 몰려 있는 우리 가족이 북감자로 갯것으로 겨우 끼니를 이어 가는 것을 보고 불쌍해서 먹을 식량을 가져온 것이다. 식량이 생겨서 온 가족이 기쁘고 감사하고 어쩔줄을 몰랐다. 그 때 보리 한 가마니는 우리 가족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주신 생명을 연장해주는 소중한 생명의 양식이였다. 지금도 우리 집안은 가족끼리 모이면 6.25를 모르는 후손들에게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반동분자로 몰려 있는 우리 가족에게 한 밤중에 식량을 가져 온 의인의 의로운 행동을 이야기 해주고 있다.

얼마 후 추적을 피해 여기 저기 피해 다니시던 아버지가 공산주의자들에게 붙잡혀서 보안서에 끌려가 심하게 매를 맞던 중 면 인민위원장이 된 소학교 친구를 만나 생명을 건져 간신히 풀려나셨으나 고문 후유증으로 아버지는 오래 동안 고통을 당하셨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평생 힘을 쓰시지 못 하셨다. 아버지는 고문을 당하시고 풀려나신 후 다시 잡히지 않으시려고 계속 숨어 피해 다니셨다. 압해도에 있는 외가로 피하시기도 하고 큰 고모집 작은 고모집 여기 저기로 피해다니셨다. 나중에는 목포에서 사법대서사를 하시는

친구인 주대선씨의 다다미 방 밑에서 숨어 사셨다. 목포에 국군이 진격하던 날 아버지는 친구 집 다다미 방 밑에서 나와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다고 하셨다. 수복이 된 후에야 아버지는 집에 돌아 오셨으나 공산주의자들에게 당한 고문 후유증으로 간에 이상이 생겨 의술이 발달하지 않은 당시에 지방 시립병원에서 간 일부 절제 수술을 받으시고 여생을 고향에서 보내셨다.

심한 감시 속에 북감자만 먹으며 마당과 마루에서 살면서 점점 심해지는 공산주의자들의 박해를 받으면서 우리 가족은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기 시작하자 섬 안쪽 깊은 산속으로 피해가서 언덕 아래에 소나무 가지로 움막처럼 가리고 피신을 하기도 했으나 점점 조여오는 공산주의자들의 압박을 더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아무도 모르게 밤에 돛배를 타고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로 피난을 가자고 협의를 하기 시작했다.

고향 앞에 있는 섬 달리도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반동분자들을 붙잡아 목에 돌을 달아 바다에 빠뜨려 죽였고 지도에서는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이 들렸다. 공산주의자들이 더욱 날뛰고 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고향에 그대로 있으면 결국은 생명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판단한 우리 가족은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돛배를 타고 섬을 빠져나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로 피난을 가려고 준비를 했다. 밤에 몰래 배를 타고 고향을



탈출해서 무인도로 피난을 가기로 작정한 날을 몇 일 앞두고 갑자기 할머니께 돌아가신 삼대 할머니 신이 내려 할머니가 평소와 다른 목소리로 “시아 바다에서 대포소리가 쿵쿵쿵 세 번 울리면 죽지 않고 살 것이다. 피난을 가지 말고 기다려라” 하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가족은 반신반의하고 불안하게 하루 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몇 일이 지난 후 온 동네에 “한 살부터 백 살까지 다 선창가에 있는 동곽에 모이라”는 명령이 전달됐고 “안 나오는 사람은 죽인다” 라는 엄한 명령이 뒤따라 왔다.

나는 명령을 듣지를 못해 낚시질을 가려고 집 아래 갯빨에서 갯지렁이를 잡으려고 갯빨을 파고 있는데 동네 어른 한분이 지나가시다가 “동곽에 안 나가면 큰일 나니 싸게 가라”고 말씀을 하셔서 쇠스랑을 집에 갔다 두고 바닷가에 위치한 동곽으로 갔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고 큰 웅기 서너 개에 마실 물이 준비되어 있었고 살벌한 분위기에 공산주의자들이 뭐라고 연설을 하더니 삼촌 한 분은 국방군으로 나갔고 다른 삼촌 한 분은 해군으로 나갔다고 반동분자로 분류된 우리 가족과 큰 아들이 경찰관이라서 역시 반동으로 분류된 정풍길씨 가족 이렇게 두 가족을 분류해서 한 쪽에 있게 하고 공산주의자들은 다른 반동분자를 잡는다고 축창을 들고 동곽에서 나간 섬의 집, 밭, 논, 산, 해변을 이 잡듯이 되지기 시작했다.

학교를 좀 다녔거나 토지가 좀 있는 동네 사람들은 반동으로 몰릴까 봐서 어디론가 숨어버렸고 수영을 해서 가까운 무인도로 피신한 분도 있고 보릿대 벼늘에 온 몸을 감추고 들키지 않은 분도 있고 막내 할아버지는 두엄이 있는 치간에 놓은 가마니 속에 들어가 하루 종일 몸을 움크리고 옆으로 누워서 숨은 덕택으로 치간을 조사한 공산주의자들의 눈에 띄지 않아 생명을 부지하였다.

남정네는 다 피신해버리고 부녀자와 어린이들만 남은 우리 두 가족은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생명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절망과 불안 속에 하루 종일 동곽에 붙잡혀 있어야 했다. 오후에 동네 부자이던 경찰관의 아버지가 마을 뒤쪽 바닷가 절벽 사슴굴이라 불리우는 옛날에 물개가 살았다는 해변 동굴에 숨어 있다가 자기 집 머슴에게 발견되자 발을 한필 줄테니 못 본 것으로 눈을 좀 감아달라고 간청했으나 머슴에게 거절을 당하고 공산주의자들에 붙잡혀 동곽으로 끌려오고 있는 중에 기적이 일어났다. 목포를 향해 진격하던 해군 함정이 마을 뒤 쪽 바다에서 목포를 향해 함포를

발사했고 섬을 뒤흔드는 폭음이 들렸고 곧 이어 해군 함정이 동네 앞 바다에 모습을 나타냈다.

공산주의자들은 혼비백산하여 동곽에 붙잡아는 반동으로 몰린 우리 가족들을 그대로 둔 채 뒷마을인 짐시리 쪽으로 가서 배를 타고 급히 섬을 빠져 도주했다. 공산주의자들은 머슴이 잡아온 경찰관의 아버지를 끌고 가면서도 머슴은 데리고 가지 않고 도주를 했다. 그 때 해군 함정이 1시간 만 늦게 나타났어도 아마 우리 두 가족은 인민재판을 받고 공산주의자들에 생명을 빼앗겼을 런지 모른다.

해질 무렵 해군들이 마을에 상륙하였을 때에 공산주의자들 지도부는 다 도망을 가 없어졌고 주인을 붙잡아 공산주의자들에게 넘긴 머슴은 해군들이 붙잡아 포박을 해서 동곽에 가뒀다. 다음 날 아침 해군들이 머슴을 신문하려고 동곽문을 열어보니 머슴의 입이 까맣게 타져있고 머슴이 반 죽음 상태에 있었다. 머슴이 해군 조사관에게 부역한 공산주의자들의 이름을 대면 처형을 두려워한 남은 공산주의자들이 밤에 동곽에 들어와 목여있는 머슴의 입을 강제로 벌리고 양젓물을 맥여 입을 태워버린 것이다.

삼촌 한분이 육군 장교이고 다른 삼촌 한 분이 해군 하(부)사관이어서 반동으로 몰렸던 우리 가족과 큰 아들이 경찰관이어서 반동으로 몰렸던 정홍길씨 가족은 직접적인 피해자들이라 누가 빨갱이며 부역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머슴에게 양젓물을 맥인 것이 누구의 소행인지 짐작이 갔지만 해군이 마을로 상륙하여 생명을 건진 뒤 할머니는 온 가족에게 엄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어느 누구에게도 보복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시절을 잘못 만나 몸쓸 짓을 했지 바탕은 악한 사람들이 아니다. 다 한 동네 사람들이 아니냐? 지금 우리가 보복을 하면 또 세상이 바뀌면 우리가 보복을 당할 것이고 보복을 하면 우리 후손들이 잘 못된다. 보복은 절대로 안 된다.” 우리 가족은 할머니의 단호한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괴롭혔던 동네 공산주의자들에게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보복을 하지 않았고 단 한 사람도 고발을 하지 않았다. 해군에게 고발을 하지 않았고 수복 후 경찰이 부역자를 색출할 때에도 우리 가족은 단 한사람의 공산주의자의 이름도 데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우리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인 해군이 마을에 상륙하여 우리 집에 왔을 때 식량이 없어서 밥은 대접할 수가 없었고 삶은 햇 감자(고구마)와 김치로 감사한 마음을 표했다. (다음호에 계속)



# 인터넷 공모전

재인니한인문화연구회

## -눈부신 푸름으로 서로 통하네-

자연을 느끼며, 옛날을 따라 걸으며, 지나온 길과 가야할 길을 생각하고 모두가 함께 가는 길이 되게 만드는 일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길이 되어 스스로 길이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교민들에게 인니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타국에서 살아가는데 안정감과 친근감을 갖게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눈부신 푸름으로 서로 통하고 싶습니다.

### 공모개요

인니문화를 통하여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인식하고 감성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더욱 잘 이해하고, 교민사회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화합의 분위기에 일익을 담당하려는 목적으로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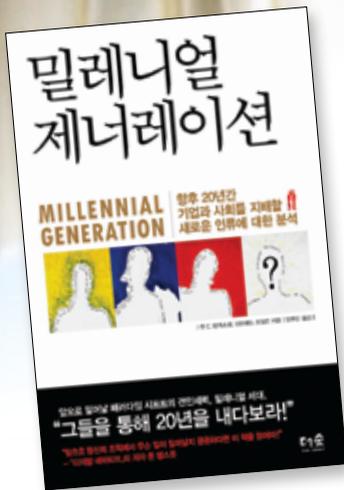
1. 주제 : 인도네시아 이야기 - 문화탐방 기행문/생활수기(제목은 자유선정)
2. 원고 모집 기간 : 2010년 6월~9월 20일
3. 대상 : 학생(만14세 이상의 중고등학생) 및 일반인
4. 원고분량 : A4용지 2쪽 이상(글자모양=신명조, 글자크기=11, 행간=160%)
5. 보내실 곳 : love.indonesia@hotmail.com
6. 시상 및 시상송회 : 10월 중
7. 시상내역: 일반부, 학생부 별도 시상(\*시상내역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상의 종류	인원	시상	시상내역
대상(1명)	1	재인니한국대사상	상장과 부상
최우수상(각1명)	2	재인니한인회장상	상장과 부상
우수상(각1명)	2	재인니한인문화연구회장상	상장과 부상
우수상(각1명)	2	재인니한인문협회장상	상장과 부상
특별상(각1명)	2	재인니상공회의소수석부회장상	상장과 부상
장려상(5명)	5	한인회문화연구회상	상장과 부상

8. 후원 : 한인회, 한인뉴스, 한나프레스
9. 문의처 : 사공경(0816.190.9976 / sagong@hotmail.com)  
박정자(0815.1070.3065 / poemever@hanmail.net)

### 붙임 :

- ① 응모자는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반드시 표기할 것
- ② 원고는 지정된 e-mail로 응모할 것
- ③ 응모작품은 제출일 이전 미발표된 순수창작물이어야 함
- ④ 기 발표된 작품이나 표절의 경우 당선이 취소 됨
- ⑤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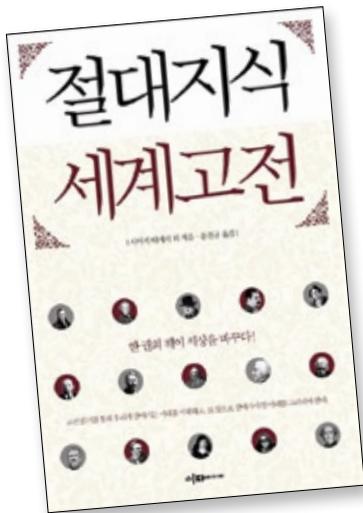


## 밀레니얼 제너레이션 - 향후 20년간 기업과 사회를 지배할 새로운 인류에 대한 분석

저자 린 C. 랭카스터, 데이비드 스틸먼 | 역자 양유신 | 출판사 더숲

### 새로운 천년을 이끌어갈 인류, 밀레니얼 세대!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인류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분석 『밀레니얼 제너레이션』. Y세대, 구글 세대, 에코부머, 테크세대라고도 불리는 밀레니얼 세대는 1982년부터 2000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말한다. 빠른 속도로 사회에 진출하고 있는 그들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하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아이튠즈로 음악을 들으며 TV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는 일을 한꺼번에 처리한다. 이 책은 변화와 희망, 다양성을 상징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과 동향을 분석하고, 그들이 앞으로 사회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진단한다. 또한 그들을 통해 앞으로의 시대 흐름을 함께 예측한다.



## 절대지식 세계고전

저자 사사키 다케시 | 역자 윤철규 | 출판사 이다미디어

### 고전의 바다를 마음껏 향해하라!

세상을 바꾼 고전을 소개하는 『절대지식 세계고전』.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 그리고 CEO까지 꼭 알아두야 할 핵심적 고전 94권을 엄선한 다음, 전문가의 세밀하고 정확한 해설을 덧붙여 소개하고 있다. 도쿄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사사키 다케시 등 일본 최고의 지식인 84명이 모여 저술한 것이다. 정치, 경제, 철학, 종교, 교육, 역사, 그리고 여성론 등 분야별로 고전을 분류한 다음, 시대 순서로 배열했다. 고전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고 이해하는 '절대지식'을 얻어 인류정신사의 흐름을 파악하게 된다. 아울러 인간과 세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삶을 풍요롭게 가꿔나가도록 이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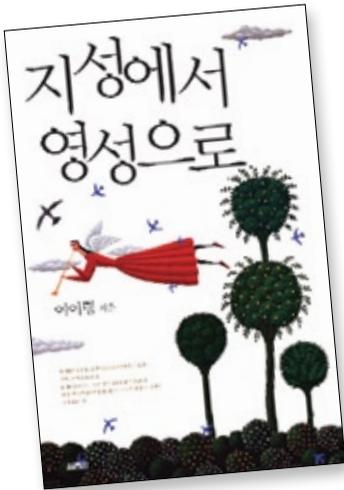


## 초강력 아빠 팬티 -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아빠 이야기 꿈공작소 4

저자 타이 마르크 르탄 | 역자 이주희 | 그림 바루 | 출판사 아름다운사람들

### 빨간 팬티를 입은 우리 아빠는 슈퍼 챔피언!

따뜻하고 든든한 아빠의 사랑을 전해주는 이야기 『초강력 아빠 팬티』. 위대한 아빠의 모습을 아이의 시선과 상상력으로 유쾌하게 그리고 있다. 프로레슬링 선수가 직업인 아빠는 매일 아침 '슈퍼 챔피언'이라는 별명이 새겨진 빨간 팬티를 입고 출근을 한다. 링 위에 올라가서 힘센 거인들과 싸우고 한 번에 수십 명의 친구들을 들어 올릴 수도 있는 아빠지만, 아들에게는 직접 우유를 먹이고 자장가도 불러주고 심지어 팬티 바람으로 학부모 모임에도 참석한다. 또한 아들을 위해 세계 챔피언인 핵폭탄 따귀와 한판승을 겨루기도 한다. 그런 아빠 때문에 아들의 어깨는 늘 으쓱해지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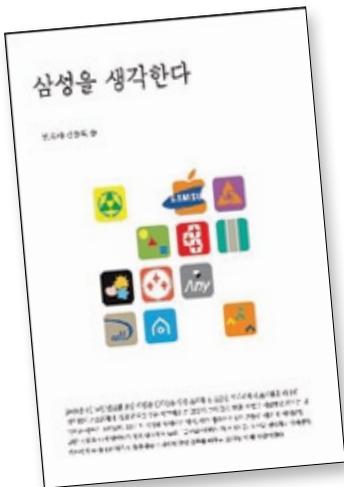


## 지성에서 영성으로

저자 이어령 | 출판사 열림원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기도가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은 시대의 지성 이어령이 전하는 ‘영성’에 대한 참회론적 메시지다. 영성의 단계로 들어가기 직전 교토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와이 그리고 한국에서의 이야기 등 크리스천 이어령이 영성의 길로 나아가고 들어오는 과정을 솔직하게 풀어냈다. 성경을 분석하며 비판을 해온 이어령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간구하게 되었는지 낮은 어조로 들려준다. 더불어 이어령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딸 이민아의 간증내용과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글도 함께 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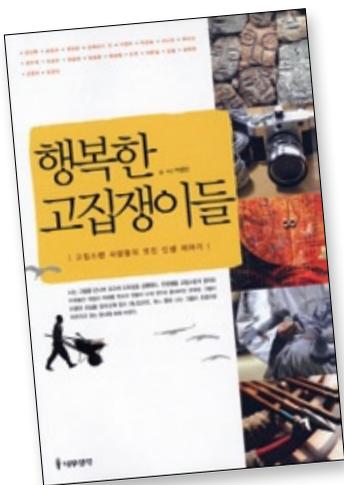


## 삼성을 생각한다

저자 김용철 | 출판사 사회평론

이제 삼성을 다시 생각해야 할 때!

변호사 김용철이 들려주는 삼성 이야기 『삼성을 생각한다』. 2007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삼성 비리’ 고발의 주인공인 변호사 김용철이 펴낸 책이다. 여기에 담긴 내용의 일부는 양심고백 당시에 공개한 것들이지만, 그보다 더 많은 부분을 저자가 삼성에서 7년간 일하면서 보고 겪은 이야기들로 채웠다. 삼성에 입사하기 전에 가졌던 글로벌 기업에 대한 환상이 모두 깨졌다고 말하는 저자는 삼성이 저지른 수많은 비리를 목격했다고 한다. 또한 그를 괴롭게 한 것은 삼성이 비리를 저지른다는 점 아니라, 그러한 비리가 삼성 존재의 한 근거라는 점이었다고 말한다.



## 행복한 고집쟁이들 - 고집스런 사람들의 멋진 인생 이야기

저자 박종인 | 사진 박종인 | 출판사 나무생각

당신은 행복한 고집쟁이인가?

낯선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 가르쳐준 철학을 글과 사진으로 담아온 조선일보 기자 박종인의 『행복한 고집쟁이들』. 가난한 데다가 몸이 불편하지만 불꽃처럼 타오르는 열정만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올곧은 고집을 지켜나가면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알짜배기 인생 이야기를 담았다. 고난에서도 예술을 꽃피운 사람들, 역사와 전통을 만드는 사람들, 세상에 희망을 건네는 사람들, 그리고 고독한 명장의 길을 걸어온 그들 고유의 장엄한 인생은 물론, 그들을 버티게 한 꿈과 자부심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아울러 인생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 과괴된 사나이

신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아내 민경(박주미)과 5살 된 딸 혜린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는 주영수 목사(김명민). 그러던 어느 날, 혜린이가 유괴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두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딸이 무사하기를 기도하지만 결국 혜린이는 돌아오지 않는다.

딸이 살아 있을 거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혜린을 찾겠다는 아내 민경을 무시한 채 타락한 삶을 살아간다.

아이가 유괴 된지 8년 후, 그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죽은 줄만 알았던 딸 혜린이가 8년 전, 유괴했던 그놈과 함께 나타났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여긴 주영수는 딸을 구하기 위한 사투를 시작한다.

## 나잇 & 데이 Knight & Day

로맨스는 거칠고 액션은 달콤하다!!

평범한 커리어 우먼 준(카메론 디아즈)은 우연히 공항에서 꿈에 그리던 이상형의 남자 밀러(톰 크루즈)를 만나 함께 비행기에 탑승하게 된다. 하지만 그녀가 잠시 화장실 다녀온 사이 비행기 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밀러. 자신을 스파이라고 소개하지만 준은 그의 정체를 믿을 수 없다.

정신을 차리기도 전 그녀를 위협하는 의문의 사람들, 그리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나타나는 밀러로 인해 더욱 혼란에 빠져드는 준. 예측할 수 없는 사건, 암살과 배신이 난무하는 가운데 그녀는 밀러를 믿고 따라가야 할지 정보기관의 배신자로 치부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들지만, 이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비밀 프로젝트에 깊숙히 휘말리게 된 준은 밀러와 함께 전 세계를 누비는 목숨을 건 질주를 시작한다.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520 1915
영사과	520 8950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522 777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 **긴급전화**

경찰 (범죄 및 도난신고)	110
구급차	118,119
전기고장 및 문의	123
전화고장 및 문의	147
화재	113
수도고장및문의	5798 6555/577 2010
열차시간 문의	121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국 부인회	526 0878
반동 한인회	022 200 6880
발리 한인회	0361 286 248
보고르 한인회	7782 8886
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 8690~1
수까부미 한인회	0266 736 441
스마랑 한인회	0298 522 296
메단 한인회	061 453 8669
족자 한인회	0274 376 741
바탐 한인회	0778 392 014
보고르 한인회	7782 886
빨렘방 한인회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28078607

● **교민 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8983 1908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844 4958~61
JIS	750 3640
NJIS	450 7660
BIS	745 166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JIMS	744 4864

● **유치원**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 스쿨(자카르타)	723 0807
(골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 **은행**

수출입 은행	525 7261
외환 은행	574 1030
우리 은행	515 1919
하나 은행	522 0120

● **종교 단체**

<b>기독교</b>	
꿈이 있는 교회	548 3044
늘푸른 교회	766 9191
동부 교회	4584 3458
연합 교회	720 5979
소망 교회	739 6487
순복음 교회	739 2373
안디옥 교회	765 3077
열린 교회	844 5537
위자야 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 사랑의 교회	420 9134
주님의 교회	831 3843
한마음 교회	739 5035
한인 성요셉 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29 0211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

● **가구**

쥬지언 퍼니처	750 6109,766 0364
---------	-------------------

●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7662
경동 건강원	7028 4262
고려 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0
한국 건강원	5579 6411
황소 건강원	5576 7628
진영 삼봉냐와	8234 565
솔진생 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름 황성주 생식	5296 1522

●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6 142 5099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 꽃집	0816 733 810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 렌트카	081 2109 7631
--------	---------------

자신을 허물고 부활을 꿈꾸는 이에게-

# 여행은 혁명이다

소장/정연승

tel.021.521.2212  
hp.081.888.5353  
email.yunisarah@lycos.co.kr

**마타하리여행사**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 변호사 이소왕 배상 -

**DOOWANG**

코리아센터 빌딩 4층(대사관 맞은편)  
T 520-7153, 525-4523 F 521-2478 doowang@cbn.net.id

**LIVING A&I**  
ARCHITECTURE & INTERIOR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항공권·호텔·관광·비자**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 RODEM TOUR**

Tel: 4587 8833 Fax: 4586 5645  
HP: 0812 967 8131  
Email: rodem\_tours@cbn.net.id

**佳肴 Gahyo**

佳肴는 1958년 부터 시작해 양·대창 전문점으로 맛있는 안주라는 뜻입니다.

**예약 : (021)5289-7044**

Jl.Jend. Sudirman Kav.52-53 Lot.6 Jak-Sel

고객 만족을 위해 언제나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퓨릭 컨설팅** Since 2001  
BUSINESS INVESTMENT & MANAGEMENT

- 회계 자문, 회계 감사, 세무 자문
- 투자, 창업 지원 서비스
- 각종 인허가 대형 서비스

Tel. (021) 5596 3213 / 5595 4666

서울 렌트카	6870 9335
우리 렌트카	081 119 3069
한성 렌트카	889 0471
짚구 기사 클럽	7279 8233

●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 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 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퀵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 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 밀레니움	7082 0056
리츠 부동산	6896 7249

● **인테리어**

LIVING A & I	7278 0704
로만 인테리어	720 4851
KEMBAR REJEKI	527 2245

●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병원**

관준 한의원	722 7745
길명근 한의원	722 4646
뉴 월드 메디칼	7279 3809
대한 치과	721 1850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 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솔 한의원	7278 7410
신동씨 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한국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땅그랑)	546 0055
R.S. Siloam(찌까랑)	8990 1911

●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 **사진관**

ELGA 포토스튜디오	521 0862
-------------	----------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골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골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리)	8459 9858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호(세노파티)	5289 7044
가호(골라빠가딩)	2850 7600
강강수월래	380 5217
강나루(땅그랑)	5576 8222
강촌(땅그랑)	5579 3681
경복궁(찌까랑)	8990 8822
고려가든(스마랑)	(024) 746 4090
고목(찌까랑)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금수강산(찌까랑)	8983 3282
기소야	574 7581
뉴 코리아타워	3193 0311
뉴서울(땅그랑)	546 0845
다리아 분식	722 0276
대감집	726 4356
돌아온 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또래오래 치킨(버까시)	8243 4848
레드토마토 EX몰	315 1033
뽕독인다	7592 0654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땅그랑)	552 1210
명가면옥(땅그랑)	552 2745
모나리자(찌까랑)	8990 9570
물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 호텔)	5296 1201
미추홀(선레이크호텔)	6583 1472
버까시 서울(버까시)	8895 7604
부산횃집(골라빠가딩)	4585 1156
산들(땅그랑)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산티카 클래식(버까시)	8459 9282
상록수	8983 6047

서동(씨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 일식(땅그랑)	546	0845
서울 팔레스	(024) 447	414
소양강(찌까랑)	897	2231
송가네 삼계탕(골라빠가딩)	4585	4422
송도(리뽀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골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7082	0601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아리랑(리뽀찌까랑)	8990	1662
아리아 분식	722	0276
아랑갈비(찌까랑)	8983	6047
아리랑(찌까랑)	8990	9917
이스타나 코리아	314	4501
어울림	551	4853
아마(땅그랑)	547	2722
어울(땅그랑)	551	4853
오장동 오스시	739	6229
우리들(땅그랑)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수까부미)	4585	1156
원치킨호프(땅그랑)	5577	6770
2002 레스토랑(땅그랑)	5940	4189
장터(골라빠가딩)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찌까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리안 하우스(씨부부르)	844	4786
코리안 하우스(반동)	(022)203	1626
코리안하우스 횡집	844	5877
타임(가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찌까랑)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골라빠가딩)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팡팡치킨	720	7275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뽀찌까랑)	8990	6230
하나정(땅그랑)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성관(골라빠가딩)	453	3033
한솔	5290	3417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골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씨부부르)	8459	2871

Korean Traditional Grill

# 고주몽



**7279-6709**  
Jl. Panglima Polim IX No.7-9 Jakarta Selatan

할매손칼국수(골라빠가딩)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향수	645	237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땅그랑)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BBQ(골라빠가딩)	4584	7444
Esse MM2100	8998	1564
Lobster & King Crab	515	5060

●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데일리 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0	9107
일요신문	452	5655
타임 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 **여행사**

굿데이 투어	4586	0598
그린 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하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 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574	2660
스카이 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 트래블	230	3116
코인 관광	720	7230
하나 관광	520	2450

**사무실 인테리어의 모든 것**  
여러분의 사무실은  
**로만인테리어**가 책임지겠습니다.



OFFICE INTERIOR 전문업체  
**로만인테리어**  
HP. 0811-847-699  
Tel: (021) 720-4851 Fax: (021) 726-0910  
Jl. Laksana II No. 13, Blok S, Kebayoran Baru

**아이니 갤러리**  
INI gallery



Telp. 021-5814690  
021-98202086  
0812 19285578  
0817 113578

가구 furniture  
Neo classic Antique, European style, Baroque,  
Modern & Minimalist, Italian iron, gold & white.

interior 인테리어  
Home, Office, Apartment, Commercial, Villa,  
Remodeling, Exhibition.



인도네시아가 보이는  
**리·얼·타·임·뉴·스**

데일리코리아는 유료정보입니다.

구독문의  
Tel 021-725-7447  
HP 0813-1898-9897  
dailykoreaindonesia@gmail.com

**Little Lambs**  
International PreSchool

Senayan - 723 0807  
Tangerang - 558 7227  
Kelapa Gading - 471 8047

**굿 - 머니**  
MONEY CHANGER

( 허가번호 NO.9/49/KEP.GBI/DPM/2007 )

**100% 환전 송금**

- 3시이후 서비스가능
- 토·일요일 서비스가능
- 배달 서비스가능

**SUDIRMAN PLAZA**  
Jl. Jend. Sudirman B1  
Tel. : (021) 5793-9990. 6840~1  
직통 : 0878-8777-0111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 갤러리 581 4690

● **운송 해운 이삿짐**

센다이 이주화물 719 0247  
아네카 트랜스 520 4181  
트랜스 우따마 829 621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5 1628  
5296-0024

FN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520 4189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6531 1123

● **인테리어**

Living A & I 7278 0704  
로만 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 갤러리 581 4690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증권/보험**

동서 증권 526 1326  
삼성 화재 520 5511  
우리코린도 증권 797 6210  
클레몽 종합금융 797 6363  
한진코린도 보험 797 5959  
E - TRADING 574 1442  
LIG 손해보험 391 3101

● **컨설팅**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쁘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 컴퓨터 725 1606

멀티캡 컴퓨터 5579 0305  
지택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www.indoweb.org  
Reading Revolution 722 0833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CITRA 781 7771

● **하숙집**

쉼터 하숙 726 8775  
일박이일 하숙집 424 0953  
교민 하숙 0816 163 5558  
미니호텔 뽀독인다 0818 760 747

● **학원/교육업**

대교 인도네시아 5292 0911  
다니엘 아카데미 722 0686  
리앤리 725 5008  
마인드케어 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 아카데미 0815 1150 6664  
박학천 논술 3342 7540  
뽀독 인다 아카데미 7590 5773  
에세드라 아트스쿨(리쁘찌까라와피) 546 4531  
예원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중로 학원 7279 1020  
토마토 미술 720 5194  
피카소 어린이 미술학원 725 5757  
하이스트 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 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 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 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 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 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 환전소 0815 1423 0114  
골라빠가징 453 1166  
사강 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 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 신암 797 6105  
참피온 머니체인저 453 0172

환전 712 8556

● **골프샵**

교민 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 골프샵 546 0838  
 레네 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 플레이골프 344 2540  
 MFS 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 골프 570 3063  
 배준원 골프교실 781 7679

● **기타**

꽃과 좋은날 0811 941 17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11 85 3156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발리 (지역번호 0361)**

● **여행사**

PESONA TAMAN KENCANA 744 1525  
 PD 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288 999  
 APA TOUR 241 341  
 TNB 773 5801  
 KORUS 744 7200  
 MARIN TOUR 224 010  
 VIP TOUR 762 090  
 SUDINA BALI 744 2121  
 MATAHARI KORIN 757 474  
 CAKRAWALA TOUR 727 242  
 B.J.C TOUR 284 365  
 M TOUR 725 800  
 SATYA TOUR 283 305  
 RED CAP 754 4418  
 스피릿투어 234 825  
 Varia Tour 860 4977  
 Korea Travel 756 899  
 대한항공지점 244 988

● **식당**

A One Seoul Garden 768 323  
 hanil rest 727 250  
 Seoul Garden (0362) 292 20  
 청기와 287 503  
 꼬끼레스토랑 287 503

발리인터네셔널 라운지 759 368  
 Ajengan Korean FOOD 263 793  
 Grill House Restaurant 752 755  
 BUGA RESTAURANT 286 909

● **서비스업**

- **마사지**  
 아이시스마사지 287 503  
 INKO MASSAGE 789 2000  
 MASSO MASSAGE 725 475

- **빌라, 호텔**

드림랜드빌라 708 199  
 라벤더 호텔 앤 스파 752 961  
 BEVERLY HILLS 789 2000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Arirang Hotel (0363) 417 95

- **기타 서비스업**

INT 720 999  
 HAN STAR 729 099  
 BALI ZIGI.COM 745 4229  
 시나르무띠아라(진주) 462 061  
 선주열리진주가게 761 539  
 발리데와타 285 501  
 CLEAN/GREEN 289 070  
 환타지가라오케 282 828  
 뜨게아궁 298 643  
 공항(플로) 759 368  
 BALI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익투스 815 310  
 Bali Cable Com 705 266  
 B,T,I 284 362  
 DEDO RAYA UTAMA 720 452  
 G,B,I 발론기구 704 333  
 LAPAMA 레프팅 288 5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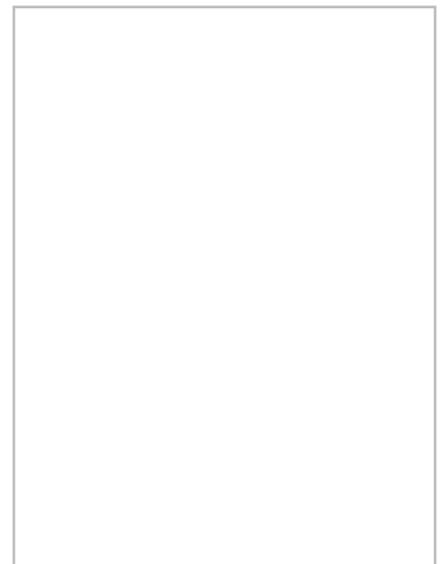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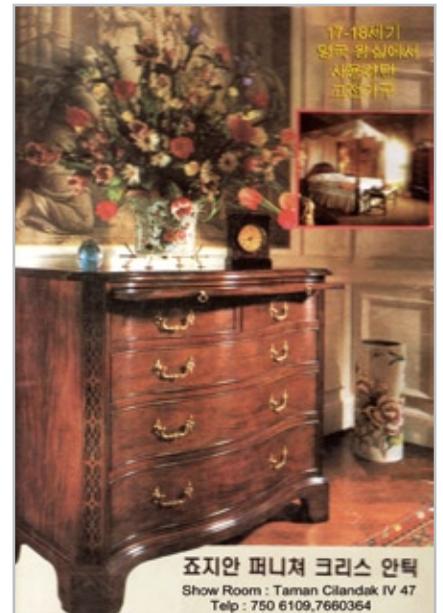
**반둥 (지역번호 022)**

● **식당**

뉴캐슬 식당 201 5007~8  
 명가 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안 하우스 203 1626  
 한국관 7081 9529

● **서비스업**

뉴캐슬 사우나 201 5007~8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haninnews123@gmail.com

# 7월 공지 사항

## KBS 해외동포상 추천

KBS에서는 제16회 KBS 해외동포상 추진계획을 별첨과 같이 수립하여 세계 곳곳에서 인류 복지증진과 문화예술 및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자랑스런 해외동포를 발굴, 시상할 예정입니다.

KBS 해외동포상 추천기준에 부합되는 재외동포 중 후보자 추천을 희망하는 동포들께서는 별첨 서류(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및 공적증빙자료(관련 논문등)를 8.20(금)까지 대사관에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항만 국경통제관리

### (BCM-Border Control Management) 시스템 구축 시행

이민청은 국제공항만에 십지문 채취 및 안면사진촬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경통제관리(BCM-Border Control Management)시스템을 구축하여 2010.3.27부터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교민 여러분들께서는 출입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국경통제관리(BCM-Border Control Management) 시스템이란?

-출입국자 통제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출입국 심사 시 여권 스캔, 십지문 채취 및 안면 사진 촬영, 자동 출입국규제자 조회 등을 동시에 시행하는 시스템입니다.

※ 기존에 없던 십지문 채취 및 안면 사진 촬영에 따른 출입국심사 지연이 예상됨.

#### 2. 적용대상

-출국 및 입국하는 모든 자국민 및 외국인  
단, 14세 미만 미성년자, 외교 또는 관용여권 소지 외국인, KITAS 또는 KITAP 소지 외국인, BCM 시스템 등록 외국인(수시 출입국자는 최초 1회만 실시)

#### 3. 시행일자

- ADI SOEMARMO 공항(SOLO 소재) : 2010. 03. 09
- ADI SUCIPTO 공항(JOGJAKARTA) : 2010. 03. 11
- SOEKARNO HATTA 공항 : 2010.03.27

※ 금년 중으로 27개 출입국공항만에 구축 예정

4. 따라서, 당분간 출입국심사 지연에 따른 불편이 예상되나, 동 시스템은 현재 세계 각국에서 자국의 안전 및 이익을 위하여 도입하고 있음을 감안, 교민 여러분들께서는 출입국심사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HuNet KOREA 안내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 온라인 신청)

우리 법무부는 국내에서 전문직종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 예컨대, 교수, 어학강사, 과학기술자, 연구원, 고급기술자 등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을 신청하는 HuNet KOREA 인터넷(www.visa.go.kr)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동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재국 국민 중에서 글로벌 리더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사증추천인을 모집하고 있으니, 교민 여러분들께서는 붙임 팜플릿을 참고하시어 주위의 유능한 현 지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사증추천인이란 우리나라의 전문직종에 취업하고자 하는 인도네시아인에 대한 사증발급을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하며, HuNet KOREA (www.visa.go.kr) 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법무부에서 임명하게 됩니다.

## 한인회 무료 법률상담 안내

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4시(1시간)

장소 : 한인문화회관 1층 상담실

Jl. Jend. Gatot Subroto No. 58, Jakarta Selatan

상담방법 : 대면 및 통화

상담범위 : 기업법무.투자컨설팅.M&A.부동산.저당권.자원개발.채권회수.파산관제.가사.상속.지적재산권.소송.중재.재단법인.출입국관리법 등 법률문제 전반

상담자 : 이승민 변호사.변리사.파산관제사(한인회 자문변호사)

MP. 0816-1911245 / Tel. 021) 529-60643)

yisngmin@centrin.net.id

## 대사관, 법률자문서비스 실시

1. 대사관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및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자문서비스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 자문 내용 :

- 인도네시아의 투자관련 법령, 제도
- 인도네시아 상법, 노동법 등 기업 영업 관련 법률문제

2. 상기 센터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당관 김호일 조사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 021)520-1915 / 핸드폰 : 0811-183-3164

E-mail : jkt\_kimhoil@msn.com

## 한인회 특별활동 및 강좌 안내

### < 인도네시아어 강좌 >

강의시간 : 매주 화/목요일, 10:00~12:00

강의실 : 한인회 2층

지도강사 : 안선근 교수

연락처 : 521-2515 / 0816-1883-224

### < 인도네시아 문화탐방 >

자카르타 소재 40여개의 박물관과 30여곳의 유적지, 갤러리, 레스토랑 탐방과 전시회 등을 관람.

탐방리더 : 사공경, 신유희

연락처: 사공경 (0816 190 9976), 신유희 (0818-708-228)

### < 월화차회 >

모임 일정 : 매주 화/목요일, 10:00

강의실 : 한인회 강당 1층

연락처: 720-4211, 0818-491-325

### < 한국어 강좌 >

강좌시간 : 매주 토요일, 09:00~13:00

대상: 한국인업체 인니종업원 및 인니인

강의실 : 한인회 2층

연락처 : 521-2515 / 0815-1177-1899



여름성수기, 여름 휴가기간을 맞이하여 대한항공에서 서울행 추가편을 운항하며, 특히 9월 르바란 기간에는 손님 편의를 위해 운항일을 변경 운영합니다. 변함 없이 대한항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대한항공은 교민 여러분이 앞으로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대한항공 운항 시간표]

### 추가운항편

편명	운항일	운항기간		출발		도착	
		From	To				
KE626	화금토	2010.6.8	2010.8.31	자카르타	23:59	서울	08:54*1
	수토일	2010.9.4	2010.9.5		00:25		09:35*1
	르바란	2010.9.7	2010.9.9				
	르바란	2010.9.18	2010.9.20				
	수토일	2010.9.22	2010.9.26				
KE625	화금토	2010.6.8	2010.8.31	서울	17:40	자카르타	22:25
	화금토	2010.9.4	2010.9.5		18:00		23:00
	르바란	2010.9.6	2010.9.8				
	르바란	2010.9.17	2010.9.19				
	화금토	2010.9.21	2010.9.25				

### 기존운항편 : 스케줄 변동 없음

편명	운항일	운항기간		출발		도착	
		From	To				
KE628	매일	2010.3.28	2010.10.30	자카르타	22:05	서울	07:05*1
KE627	매일	2010.3.28	2010.10.30	서울	15:45	자카르타	20:35

#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18년간의 신용과 정직을 바탕으로  
고객님께 행복을 드리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전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배달 가능))
- 최상품 다이아(GIA) 판매 - 90% 환매 보장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갤러리(위자야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KT-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점(수출/무역)

Tel. 021-725-8857  
HP. 0816-873-176 / 0816-1390-333



## 제4회 한인회 인니문화연구회 열린강좌

### 살아 숨쉬는 古都 - 족자카르타 이야기

- 강사: 헤리티지 스쿨프로그램 회원
- 진행: 강의, 질문, 다과
- 대상: 인니문화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
- 일시: 2010. 7. 26. (월), 10.00~12.30
- 장소: 한인회문화회관(도서관)

한인회인니문화연구회는 교민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인도네시아 문화에 대한 강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인니에 대한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교민들의 인니 생활이 보다 능동적이고 활기차기를 바라는 뜻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다양하게 전개되는 인니에 대한 모든 것을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183회~186회

## 한인회 인니문화 연구회 문화탐방

일시: 7월 28일경 (2박3일)

탐방지: 족자 프람바난 사원 보로부드르 사원 외  
연락처:

신유희 0818-708-228/plentyhoki@yahoo.co.kr

사공경 0816-190-9976/sagong@hotmail.com



# 교민 여론광장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가정에, 회사에, 친구에게 ... 한인사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가정과, 회사와, 친구와 ... 한인사회와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

평소 머리속을 맴돌며 궁금했던 질문들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들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한인뉴스에서 '교민여론광장'의 문을 엽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한인뉴스 지면을 통해 나가게 됩니다.  
교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의견 보내주실 곳 :

한인뉴스 편집부 이메일 : [haninnews123@gmail.com](mailto:haninnews123@gmail.com)

문의 : 김영민 편집위원(hp: 0818 916 566)

\* 의견을 보내주실 때는 성함과 연락처(핸드폰)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주시는 분의 요청이 있을 시 익명으로 게재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근거없는 비방글이나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HYUNDAI  
TRUCK & BUS**



 **HYUNDAI**



More than a game, it's a way of life.

**Hyundai, Official Partner of 2010 FIFA World Cup™**

 **KORINDO MOTORS** CONTACT: (021) 596-0445